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23 호 12월 5일

평양 근로자사 1963

근로자

전 세계 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 관 지 (반 월 간)

제 23 호 (237)

1963년 12월 (상)

차 례

언어 문화를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달라붙자

유구한 세월을 두고 조선 인민은 자기의 언어, 조선어를 써 가며 살아 왔다.

조선어는 그 어느 때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요긴하고도 소중한 존재이였다. 어머니의 품안에서 배우기 시작한 조선어는 일생을 두고 우리 생활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모국어라 부르며 자기의 조국과 더불어 더함 없는 사랑으로 대한다.

특히 오늘날 우리 조선어는 조선 로동당의 언어다. 조선어를 통하여 당은 자기의 정책과 가르침을 조선 인민들에게 주며 인민은 조선어를 써서 이것을 리해하고 연구하며 실천에 옮긴다. 정치, 경제, 문화의 그 어느 곳에나 우리 당의 사상이 아니 가 있는 곳이 없고 그 어느 곳에나 조선어가 아니 가 있는 곳이 없다.

우리 활동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조선어의 표현성은 더욱더 세련되고 풍부화되며 정밀화될 것을 요한다.

조선어는 조국의 륭성 발전과 더불어 그 문화성이 더욱더 높아져야 하며 훌륭한 교제의 수단으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여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실정—여기에 근거하여 우리 당은 항상 조선어와 일'군들의 언어 생활에 깊은 고려를 돌리고 있으며 정확한 언어 문화 정책을 실시한다.

조선 인민은 당과 수령의 가르침을 받들고 언어 문화의 령역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오늘의 우리 말과 글은 8.15 이전의 것이나 더우기 미제 강점 하 남녘 땅의 그것과는 비할 바가 아니다. 조선 사람의 말과 글의 응당한 전형은 이 땅, 공화국 북반부에서 이룩되여 간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진 도상에서의 이 성과에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급히 하여야 할 일들이 적지 않다.

천리마로 내닫는 조선 인민의 언어 생활에 상응한 만족스러운 말과 글이 많지 못하다. 적지 않은 말이나 글에서 부족점이 청산되지 못 하고 있다.

언어 형식이 덜 다듬어져서 중요한 내용들이 효과 있게 전달되지 못 하며 리해되지 못 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

유구한 전통과 높은 문화를 가진 조선 인민의 언어 문화는 응당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

우리는 결정적으로 달라붙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인민적, 전 국가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강력하고도 꾸준한 노력으로 이것을 철저히 해결하여야 한다.

이 전진 운동에 장애를 주는 중요한 한 측면은 우선 일'군들의 관점, 각오 정도와 관련되여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말과 글은 별다른 노력이 없이도 저절로 습득되며 자기의 언어 생활을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언어는 그 어음, 어휘, 문법, 문체들이 비교적 복잡한 정경을 띠고 있으며 해당 사회 성원들이 다 같이 지켜 나아가야 할 일정한 규범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 배우지 않아도 모두가 다 잘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전혀 모르지 않는 것이 자기 나라 언어지만 또 소박한 단계를 벗어 나려면 힘써 배워야 하는 것이 자기 나라 언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여야 한다.

일부 일'군들은 또한 흔히 언어적 상식은 언어 연구가나 기타 《전문 일'군》들만이 알 바라고 그릇 생각하고 있다.

언어적 상식은 문명한 사회의 글 쓰는 사람들의 상식이며 말하는 사람들의 상식이다. 이것은 결코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다.

또 때로는 자기 나라 언어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풍부화하려는 각오와 기백이 결여되여 있는 현상도 볼 수 있다. 곧 전혀 모르지도 않는 데다가 조금 더 잘 알려면 일정한 노력이 드는 것으로 하여 얼마간 알고 있는 데 주저 앉고 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일한 생각이며 높은 문화 생활을 하려는 우리들이 취할 바가 아니다. 노력이 없이 아름다운 열매가 차례지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 습득에서도 적용되는 진리다.

다음으로는 일부 일'군들이 언어 생활에서의 군중 관점이 철저히 서 있지 못 하다.

자기의 언어 지식을 모두 동원하여 사람들이 잘 리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며 글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 되는 대로 조잡한 채로 버려 둔다.

자기가 하는 말이며 자기가 쓰는 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좋아 하는 글, 대중이 리해하는 말—이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성실한 마음씨는 혁명하는 사람의 고상한 품성이며 아름다운 륜리다.

김 일성 동지는 일찍부터 《오직 대중을 위하고 대중의 심리를 잘 알고 대중이 요구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선집 제 1 권, 1955년 판, 100 페지)여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우리들은 참으로 이 참뜻을 깊이 체득하고 반드시 실천에 옮기여야 한다.

또 적지 않은 일'군들은 말과 글을 더 인민적으로 개선하는 데서 이러저러하게 보수성을 버리지 못 하고 있다.

말과 글이 통속적이여야 하며 간결하고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자기가 말과 글에 부닥치면 대담하게 쉽게 하며 통속적으로 만드는 데 주저한다.

관습이란 그것이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을 완강히 요구하며 개선과 전진을 가로막는 수가 적지 않다. 의식은 현실적 요구보다 뒤떨어져서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이것은 응당 깨뜨려져야 한다.

사실 상 이제까지의 언어 문화 운동에서의 전진도 바로 이런 관습 및 의식과

의 투쟁의 력사로 일관되여 있다.

처음에는 그런 쉽고 통속적인 말이나 글은 그것을 이루는 사람의 위신을 저락시키고 표현의 《정중성》, 《엄격성》, 《박력》, 《전투성》을 망쳐 버리는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정하게 쉽고 통속적으로 된 오늘날의 견지에서 지난 때를 돌이켜 볼 때 결코 그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태는 몇 배나 좋아졌다.

오늘날의 눈으로 몇 해 전의 글을 볼 때 느끼는 부족점을 오늘날의 글에서 보려는 앞날의 눈—이것을 가지는 데 더 대담하여야 한다.

언어 문화 운동을 일으킨 지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말과 글의 문제가 론의되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바로 이 보수성에 있다.

전진할 것처럼 말하면서도 일정한 한계를 긋고 그 이상은 들어 가려 하지 않는 보수적인 태도—이것과의 투쟁 없이 우리의 이 운동은 전진할 수 없다.

우리의 투쟁의 한 예봉은 응당 이것을 깨뜨리고 불살라 버리려는 데 돌려져야 한다.

우리들이 언어 문화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데서 크게 해결을 지어야 할 것은 교육 부문이다.

교육 기관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거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언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 부문을 대담하고 심각하게 론의하여 본 일이 많지 못 하였다.

학생들은 작품을 별로 읽지 못한 채 그 사상성과 형상성을 론하는가 하면 문법 교육을 통하여서는 추상적인 범주와 정의를 주로 배우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어휘를 습득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리해하는 기회를 많이 줄 수 없게 하였으며 더구나 작품 이외의 다양한 글들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못 하였는바 학생들의 필력을 길러 주는 데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어문 계통의 교육을 조선 사람의 실정과 조선어의 실정에 맞게 주체적 견지에서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응당한 필력을 가지지 못한 채 젊은이들이 사회에 진출하며 또 그 능숙하지 못한 솜씨가 자기 후대의 본보기로 되고서는 우리의 언어 문화가 결코 높아질 수 없다. 오늘날 말과 글에 대한 교양은 사회적으로도 주어야 하지만 일반 사회 성원들의 후비로 되는 학생들에게 우선 잘 주어야 한다. 들어오는 물이 흐리고서는 호수가 항상 흐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교원들의 역할은 아주 크다.

교원들은 어문 계통을 담당할 경우는 물론 다른 과목을 맡는 경우에도 우리의 말과 글에 대한 상식과 지식을 결정적으로 높이여야 한다. 직접 말과 글을 가르칠 때는 물론 다른 수업에서도 교원의 언어 지식은 학생들의 언어적 소양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일껏 어문학 계통의 수업을 통하여 정확히 준 언어의 규범적 측면들이 다른 교수 시간에 파괴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젊은이들에게 언어적 소양을 길러 주는 데서 교과서가 또한 큰 역할을 한다.

국어 교과서를 모범적인 다양한 문체의 글들로 엮어야 하며 새로운 중요한 어휘들이 계통성 있게 단계를 밟아서 붙어 나가도록 만들어야 한다. 다른 교과서의 문장들도 모두가 세련되여서 그것이 또한 조선어 습득의 산 모범의 구실을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 교원들은 교과서 이외에 필요한 참고서들을 가져야 하며 특히 조선어 사전을 가지고 수시로 어휘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필요한 바, 여기에서 이런 서적들의 집필자와 출판 일'군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

다음으로 언어의 문화를 높이기 위하여 작가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적지 않다.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바와 같이 작가는 정신의 기사인 동시에 또한 언어의 명수이기도 하다. 한 나라의 언어 발달에서 작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크다. 수 많은 나라들의 표준어가 이름 난 작가의 출현과 함께 확립 공고화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이 만큼 작가는 영예로우며 또 그 짐이 무겁다.

그러나 일부 우리 작가들의 글은 세련되였다고 하기 어려우며 인민의 모범으로 된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없지 않다. 어휘의 사용, 비유의 적용, 문장의 구성에서 인민들에게 접수되기 어려운 구절을 종종 보게 된다. 또 문예 평론의 글은 그 론리가 간명하지 못하며 문장 구성이 필요 없이 장황한 경우가 있다.

작가에게 있어서도 문체론적인 규범까지도 포함한 일체 언어적인 규범은 일단 의무적이다.

물론 작가는 언어의 명수로서 그 표현성을 일정하게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창조는 항상 인민의 찬동을 받을 수 있을 때, 언어의 발달 법칙에 순응하였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작가라 하여 인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언어 규범 상의 리탈을 자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에게 있어서도 우선은 인민들이 공인하고 있는 풍부한 어휘와 의미들, 다양한 표현들, 엄밀한 문법들을 배우며, 겸허하고 진지하게 언어적 수양을 쌓는 것이 특히 오늘날 절실히 요구된다.

작품에 대한 평가에는 거기서의 언어 사용 정형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것이 좋으며 작가들 속에서 작품의 언어에 대한 과학적 론의가 더 활발히 일어 나야 한다.

참으로 작품의 글에서 사람들은 인상 깊게 배우며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만큼 작가는 언어의 스승으로서 큰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출판 보도 일'군들의 역할이 우리 나라의 언어 문화에 주는 영향은 자못 크다.

광범한 인민 대중이 매일과 같이 보고 듣는 것이 신문의 글이며 잡지의 글이며 라지오의 말이다.

따라서 이 글과 말이 잘 되고 못 되는 데 따라 인민들이 언어 생활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 동안 출판 보도 일'군들은 말과 글에 대한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적지 않은 노력들을 기울이였다. 이러한 노력의 귀중한 열매는 바로 오늘날의 신문의 글, 라지오의 말이 현저히 개선된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정한 결함을 반복하고 있으며 특히 표현을 쉽게 하는 면에

서며 대담하게 나아갈 여지가 없지 않다. 특히 지방 출판물들의 글에서는 더 많이 다듬는 작업들이 있어야 하며 방송의 말에서는 정서성, 호소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억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판 보도 일'군들은 인민들에 대한 언어 교육자적 사명을 자각하고 지도적 견지에 설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민적인 좋은 단어나 표현들을 적극 보급시키며 인민성이 없는 딱딱하고 어려운 어휘나 표현들을 적극 없애며는 능동적 작용을 하여야 한다.

어떤 다른 계통에서 전달을 받은 사실을 보도하게 되는 경우라도 그 언어적으로 세련되지 못한 단어나 표현들은 같은 내용을 담은 다른 좋은 단어나 표현으로 고쳐서 내놓을 권한이 있으며 또 의무가 있다.

출판 보도 일'군들은 나쁜 어휘나 표현이 걸리는 관문으로 되여야 하며 좋은 어휘나 표현으로 바뀌는 교환처로 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항상 언어를 더 깊이 연구하며 언어에 대한 자질을 더욱더 높이여야 한다.

오늘날 국가 공문서의 글들이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주는 영향도 또한 적지 않다.

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며 접수하며 보도한다. 그러므로 그 초안을 작성하는 일'군들은 언어 문화의 견지에서 쉽고 간명하게 글을 짜며 특히 쉬운 용어들을 쓰도록 류의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는 문체에서 서사어의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는바, 이런 특성으로 하여 지나친 격식화가 이루어지기 쉽고 표현이 엄정한 나머지 딱딱하여지기 쉽다.

과학자들의 과학 론문들, 기술 서적들의 글도 더 쉽고 통속적으로 되여야 하며 표현이 정확하면서도 명료하고 간결하여야 한다.

이런 론문이나 글들은 오늘날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만 읽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전 인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과학 지식의 보급을 받고 기술 혁신의 지식을 얻고 있다.

과학 기술의 글이란 원래 문체적으로 독특한 점이 있어서 정서성보다도 주로 론리성이 생명을 이루는바, 이런 특성으로 하여 글이 어려워지기 쉽다.

무대, 영화들에서의 배우의 말과 수많은 우리 선동원들의 말은 대중에게 주는 영향이 아주 크다.

배우의 말은 문화적이고 세련된 것으로서 전 인민적인 표준 발음의 전형을 형성하는 수가 많다. 록음을 통하여 널리 소개되며 특히 젊은 학생들의 표준 발음 교육에 도움을 주게 되여야 한다.

그리고 선동원들은 어떤 서사어적인 글에서 자료를 취하는 경우라도 글과 말과는 다르다는 것을 깊이 류의하고 그 내용을 자기의 말로, 인민의 말로, 로동자, 농민의 말로 고치여 쉽고 흥미 있게 해설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 언어 문화 운동에서 조선어 연구가들의 책임은 참으로 크다. 발음, 철자, 어휘와 그 의미, 문법, 문체 기타의 전 령역에 걸쳐서 언어 규범과 리론에 대한 해답을 주어야 하며 조선어가 앞으로 발달하여 나아갈 방향을

민감하고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측면에서 오늘날 조선어 연구가들은 준비가 충분히 되여 있다고 할 수 없다.

조선어의 억양을 비롯한 발음 상의 온갖 특성들을 규명하여 정확한 발음에 도움을 줄 리론적 해명들이 덜 되여 있으며 문체론의 연구를 심화하여 글을 효과 있게 쓰도록 방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조선어의 어휘론, 의미론, 문법의 연구를 실천과 더 밀접히 련결시켜야 하며 이제보다 더 정밀한 전문 용어의 사정, 띄여 쓰기의 규정 작성, 철자법의 보충을 시급히 끝내야 한다. 특히 전문 용어 사정에서는 한'자 사용이 폐지된 조건 하에서 인민들이 잘 리해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인민의 언어에 튼튼히 립각하여 좌우경적인 두 편향을 다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민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조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연구 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현재 조선어 연구가들의 대중 앞에서의 강의는 이런 실태에 기초하지 못한 점이 많으며 따라서 더 깊이 들어가서 인민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조선어 연구가들은 리론적 연구에 치우치고 인민들의 언어 생활과 직접 결부된 실천 문제에는 비교적 어두우며 또 자기 자신의 말이나 글이 모범적으로 되지 못하는 수가 없지 않다.

조선어 연구가 집단들은 언어 문화를 위한 이 영예로운 과업 앞에서 바로 자기 내부를 과학적으로 잘 꾸리며 모두가 이 운동의 선두에 나서서 전진하여야 한다.

언어 문화 운동은 전 인민적인 운동이다.

작가, 기자, 예술인, 교육자, 과학자, 전문적인 조선어 연구가들이 당의 언어 문화 정책을 높이 받들고 밀접한 련계 밑에 서로 돕고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

조선어 연구가들이 실정에 맞는 더 깊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강의 기타를 통하여 풍부한 지식들을 제공하여야 하며 모든 문필 활동가들은 이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선 자기의 말이나 글에서 모범을 창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언어 문화 운동은 조선 혁명에 복무하고 있으며 우리의 문화 혁명의 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의 온갖 교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것이며 당의 의도를 받들고 전체 인민들이 더 잘 혁명에 복무하게 할 것이다.

우리 당의 인민적 언어 정책

김 병 제

조선 인민은 자기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 문화를, 그리고 아름답고도 발전된 민족어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한다.

우리의 민족어는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서로 교제하는 수단으로, 사상 교환의 무기로 사용되여 왔으며 우리 인민이 걸어 온 력사와 함께 발달하여 왔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 민족어의 발달, 이것은 아무러한 우여 곡절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인민의 력사가 계급 투쟁의 력사인 것처럼 우리 민족을 특징 짓는 중요한 표식의 하나로서 우리 민족어의 고수와 발달의 력사도 투쟁으로 일관되여 있다.

우리 민족어가 오늘과 같이 전 인민적 소유물로 되고 고도의 인민성을 띠게 된 것은 오랜 기간에 걸친 봉건 통치 계급들의 반인민적 시책과 근 반세기에 걸치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포악하고도 야만적인 언어 말살 정책에 대한 우리 인민의 끊임 없는 투쟁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특히는 해방 후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민족어의 온갖 우수성과 인민성을 론할 때 마땅히 그 창조자이며 보유자인 인민들의 투쟁과 우리 당의 인민적인 언어 정책, 그리고 언어 발달의 객관적 법칙과를 관련시켜서 보아야 한다.

과거의 봉건 지배 계급들, 사대주의자들은 자기의 언어를, 속어(俗語)니 언어(諺語)니 하여 우리 말을 상말로 여기였다. 심지어는 우리 민족어를 어떤 언어에 대한 곁 가지로 인정한 나머지 방언(方言), 향언(鄕言)이라고까지 불렀다.

이리하여 봉건 통치배들은 민족어를 진정한 인민의 언어로 발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민족어의 보편화를 억제하였으며 저해하였다.

그러나 광범한 인민 대중은 이와는 반대로 언제나 자기 언어에 대한 무한한 애착심을 가지고 그 우수성을 발현하며 이를 더욱 발달시키는 길로 나아갔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날부터 일체의 공용어를 일본어로 할 것을 선포하였고 그 마지막 시기에는 소위 《국어 상용》을 강요하는 등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어의 말살에 광분하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잊지 않았고 자기의 찬란한 문화를 끔찍이 사랑했으며 자기의 말을 끝내 버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조선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제적 동화 정책에 항거하여 민족적 자주성을 고수하며 모국어의 수호와 발달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민족어는 거대한 견인성과 비상한 저항성을 보여 주었다.

특히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족 문화와 민족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어의 고수를 민족 해방 투쟁의 한 고리로 간주하고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에도 민족어의 교육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혁명 근거지와 해방 지구들에서 문맹을 퇴치하는 사업과 함께 실지 모국어 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해방 후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들의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인민이 걸어 온 력사, 우라 민족어가 겪어 온 복잡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민족어와 민족 문'자를 진정으로 인민의 소유물로 만들며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건설에 적극 복무할 수 있도록 일련의 혁명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우리 당 규약에 명시되여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창건 첫날부터 전체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다.

《우리 당은 항상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밀접한 련계를 가지며 인민들과 같이 살며 인민들의 리익을 자기의 리익으로 알며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온갖 정책들을 세우며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방법을 다 하는 정치 로선을 세우고 있다.》 (김 일성 선집 제 1 권, 452 페지)

우리 당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나라의 주인은 인민이며 인민 대중은 사회를 발전시키며 온갖 물질적 및 정신적 재부를 창조하는 결정적 힘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시종일관 인민에 의거하며 인민들을 당의 주위에 단결시키며 인민들의 창발성을 적극 동원하는 혁명적 군중 로선, 맑스-레닌주의적 군중 관점을 관철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어가 전 인민적 소유물로 되고 인민성을 띠게 된 것은 오로지 우리 당 군중 로선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결과다.

해방 후 우리 당은 광범한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가시키기 위하여 일제의 우매화 정책이 빚어 낸 수백만의 문맹을 퇴치하는 사업을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한 결과 짧은 기간에 이를 성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우리 인민들의 일상적 서사 생활에서의 한'자 사용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거 우리 인민에게 있어 한문 학습은 실로 무거운 짐으로 되였을 뿐 아니라 또 그것이 전 인민적 소유물로 될 수 없었던 만큼 민족 문화 발전에 커다란 질곡으로 되였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민족 문'자를 가지고 맑스-레닌주의 리론과 당의 정책, 그리고 정치, 경제, 과학, 문화 등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다. 이것은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과 민족 문화 창조 사업에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해방 직후만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는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낡은 잔재가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당의 정확한 지도에 의하여 계급적 통용어, 일본어적인 어휘, 불필요한 외래어, 인민 대중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와 한문식 표현 등 비인민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유구한 력사 발전 행정에서 우리 인민이 창조하였으며 발달시켜 온 평이하고도 아름다운 인민적 어휘를 찾아 쓰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 언어 정책의 빛나는 승리의 하나이며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말하여 준다.

우리가 민족어의 인민성, 평이성을 말할 때 단어의 선택, 성구, 속담, 문장 구조, 서술 체계, 문풍 등 문제들에 대하여 론의할 수 있다.

우선 단어의 선택을 두고 말하더라도 동일한 의미 내용을 가진 단어 부류 가운데 고유 조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 및 외래어들이 있으며 동일한 고유 조선어 가운데서도, 또는 동일한 한'자어 사이에도 어렵고 쉬운 것이 병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쉬운 단어를 선택하여 쓰는 것은 언어의 인민적 성격을 높이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언어의 본질적 사명에도 부합된다.

《언어는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도 존재하며 또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실천적 의식이다. 의식과 마찬가지로 언어는 오직 다른 사람과 교제해야 하는 요구와 진정한 필요에서 발생한다.》(맑스,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그러므로 언어는 사회에 대하여 단일적이며, 사회 성원들의 계급적 지위에는 관계 없이 이들에게 평등하게 복무하는 만큼 전체 인민들에게 공통적으로 리해되기 쉬운 말, 쉬운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은 언어에 관한 맑스주의적인 진리다.

이와 마찬가지로 언어의 인민성, 이것은 언어 발달 행정에서 형성된 기본적 속성이다. 때문에 우리 민족어를 인민 대중에게 더 잘 복무할 수 있도록 하며 혁명 수행의 무기로서 더욱 발달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 일성 동지는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이미 군중이 잘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조선말을 쓸 것을 강조한 바 있거니와 해방 후에도 대중이 알아 들을 말을 하며 대중이 원하는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선진 일'군들이 군중이 알아 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해설하여 주지 않고 자기도 완전히 리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용어들과 명제들을 타렬하는 독경식 교양 방법에 대한 지적도 여러 차례 하였다. 이것은 언어의 인민성과 평이성을 보장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여 왔다.

또한 말은 될수록 로동자, 농민이 알아 들을 수 있는 그들 자신이 쓰는 쉬운 말로 해야 하며 남이 알아 듣지 못할 말을 해서는 아무 소용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강력한 력량으로 되고 있는 만큼 사람들이 말을 할 때나 글을 쓸 때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우리 당의 군중 로선에 전적으로 부합된다.

맑스-레닌주의 언어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우리 당의 이러한 일련의 언어 정책은 일반적으로는 민족어의 발달에, 특수적으로는 우리 민족어의 인민성과 평이성을 보장하는 데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김 일성 동지의 로작들은 언어의 인민성, 평이성을 포함하여 전반적 언어 실천에서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였는바 이것은 우리들의 구감으로 되고 있다.

우리 당은 또한 나라의 생산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며 민족 문화가 류례 없이 개화 발전하는 현실에 복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민족어의 규범화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언어 규범이란 발음과 철자법, 단어의 의미, 문법적 형태와 그 구조 등 분야를 포괄하는바 우리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인 것을 취하여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문제는 민족어의 발달을 위하여 제기되는 필연적 요구다.

언어 실천에서 규범을 설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 생활에서의 다양한 표현적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틀에 얽어 매여 두자는 것도 아니다. 규범이란 오히려 언어 사용자들 사이의 리해를 용이하게 하며 통신적 기능을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그것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며 민족어의 통일적 발달의 중요한 담보로 된다.

해방 후 우리 당 언어 정책의 빛나는 승리의 다른 하나는 인민적 문풍 확립이다.

당은 인민적 문풍의 중요한 특성으로 되는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돌렸다.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이란 한 마디로 말하여 전달하고저 하는 내용의 본질을 간단하게 압축하여 서술하면서도 론리가 정연하여 앞뒤의 모순이 없고 그 내용을 똑똑하게 나타내는 언어의 표현적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사상은 내용을 이루며 문체는 형식을 이룬다. 내용과 형식은 서로 깊은 상관적 관계를 가진 즉 서로 분리할 수 없는 통일체를 이룬다. 따라서 언어적 형식 즉 문체의 간결, 정확, 명료성이 보장되지 않아서는 그 내용을 명확히 정당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다시 말하면 훌륭한 내용은 우수한 언어적 형식으로 표현되였을 때 비로소 생활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훌륭한 문풍을 이룬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의 립장과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문풍에 대해서는 봉건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글을 씀에 있어서 어떤 립장에 서는가, 누구를 위하여서인가에 따라 문풍의 성격은 달라진다.

낡은 사회에 있어서는 내용이 없고 소위 아름다운 말과 글'귀의 타렬에 그치며 허위가 가득찬 반인민적인 문풍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또한 그러한 문풍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글은 인민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계급들의 취미와 도락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진정한 문풍은 인민적 언어의 온갖 우수성과 풍부성을 남김 없이 리용하여 인민 대중에게 복무하도록 하는, 글을 읽는 사람의 립장의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더우기 인민적 문풍은 언어에 내재하는 인민적 성격, 그 성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그 성격에 부합되게 말하며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계급적 립장과 태도가 중요한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인민적 문풍이란 인민적 립장, 당적 립장에서 쓴 그러한 글이 가지는 풍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문풍은 오늘날 로동당 시대에 와서 활짝 꽃피게 되였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당이 자기 활동과 지도의 전 행정에서 모든 혁명 사업을 오직 인민 대중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또한 혁명 수행이 인민 대중의 힘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당의 군중 로선과 인민적 사업 작풍이 철저히 구현된 인민적 시책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당의 언어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철두철미 인민적 립장이며 어데까지나 당적 립장이다.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는 그 사회 성원들에 동일하게 복무하는 만큼 언어 그 자체에는 계급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사회의 이러저러한 계급들과 집단들은 언어에 대하여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리용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들의 관점과 립장은 어데까지나 계급적 성격을 띄게 되며 언어에 대한 반작용의 성격을 규정하는바 이것은 사회 제도 여하에 따라, 사람들이 어떠한 립장에 서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규정된다.

이미 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의 창조자는 인민이며 또 이를 발달시켜 온 것도 인민이다. 때문에 언어 사용에서 인민적 립장에 서며 언어를 인민 대중들에게 복무하도록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며 동시에 그것은 맑스-레닌주의적 당적 립장이다.

우리 당은 언어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튼튼히 립각하여, 사회주의 혁명 수행에서 민족어가 노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우리 민족어의 개화 발달을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당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우리의 민족어는 그 면모를 일신하였으며 오늘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 건설에 효과적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 공화국 남반부의 언어 상태는 이와는 판이한 길을 걷고 있다.

미제와 그 주구들의 반인민적 시책으로 말미암아 남반부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고 있으며 문맹은 날로 증대되여 광범한 인민 대중은 과학과 문화의 령역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조선 인민은 단일한 민족이며 단일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자는 점차 달라져 가고 있으며 문화와 생활 풍습도 달라져 가고 있다.

오늘 남반부에서는 우리의 찬란한 민족 문화, 예로부터 하나의 길로 발달하여 온 우리 민족어의 자주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민족어의 아름다운 전통은 여지 없이 더럽혀지고 있다.

모든 출판물들은 국한문을 섞어 쓰고 있으며 어려운 한자어와 영어, 일본어 등 외래어가 뒤섞이여 있으며 게다가 괴벽하고도 까다로운 말투나 표현들로 하여 아름답고도 우수한 우리의 민족어는 완전히 자주성을 잃고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언어는 인간의 모든 활동과 직접적으로 련결되여 있으며 어휘 구성은 사회의 온갖 변화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다. 때문에 오늘 남반부에서의 부패한 양키식 문화와 말세기적인 미국식 생활 양식은 남반부의 언어에 그대로 반영되여 민족어의 인민성은 그림자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이뿐 아니라 반동적 문화인들은 인민들이야 알거나 모르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유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 언어를 뒤섞은 괴상하고 야릇한 언어적 형식으로써 인민들을 우롱하는 글을 쓰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아름답고도 우수한 우리 민족어의 발달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제의 야수적인 식민지 통치와 악랄한 조선어 말살 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모국어를 끝까지 고수하여 온 고귀한 경험과 빛나는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국 통일을 촉진하며 앞으로 통일된 후 남반부 인민의 비참한 처지를 구원할 튼튼한 물질적 담보가 있으며 남반부의 어지러워진 언어 상태를 바로 잡을 튼튼한 인민적 언어 토대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의 정확한 인민적 언어 정책과 현명한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 놓은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화하며 이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 과업이 남아 있다.

자주 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백 남 운

자주성은 조국 통일의 기본 원칙

어떠한 민족을 막론하고 자주성이 없이는 무엇 하나 자기 마음 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해방 전 조선 인민이 망국노의 생활을 한 것도, 해방 후 남조선 인민들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도 그들이 외래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주권을 침해 유린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남조선이 북조선과 같이 자기 의사 대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도 이미 실현된지 오랬을 것이다.

조선의 통일 문제를 조선 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은 조선의 주인은 바로 조선 사람이라는 데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매개 민족은 자기의 운명을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민족 자주 자결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당과 정부는 조국 통일 문제 해결에서 자주성을 확고 부동한 원칙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3 기 제 1 차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 연설에서 조국 통일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조선 인민의 내정 문제이며 오직 조선 사람 자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조선의 내정에 외국이 간섭할 어떠한 근거가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 내부의 일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것은 망상이며 그것은 전 조선을 제국주의 침략에 내여 맡기자는 것이다.》

조선의 통일 문제는 유구한 력사적 전통을 가진 통일된 국가, 단일한 민족을 두 부분으로 분렬한 인공적인 장벽을 제거하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혈연적인 련계의 회복과 통일을 실현하는 문제인 만큼 어떤 국제적 분쟁 문제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한 것이며 민족적 자주권에 속한 문제인 것이다.

조선을 분할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자들만이 이 엄연한 진실을 무시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조선의 통일 문제가 완전히 조선 인민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인 까닭에 어떠한 외부의 세력도 이에 간섭할 수 없으며 오직 조선 인민 자신의 힘에 의하여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과 정부가 조선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족적 자주 자결권을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제국주의 추종분자들은 아직도 외세에 의거하여 통일할 것을 망상하며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10 여 년 동안이나 되뇌이고 있다. 도대체 유엔 감시 하의 선거란 무엇이며 그것이 과연 무엇을 가져 올 것인가?

오늘날 유엔의 이름은 미제의 침략 행동을 은폐하는 도구로 리용되고 있다. 더구나 조선에서 유엔은 교전 일방으로 되였으며 오늘까지도 미제 침략자들은 유엔의 기'발 밑에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감행하고 있다.

유엔의 감시란 사실 상 미국 침략자들의 신식민주의를 연장하기 위한 감시라는 것은 삼척 동자에게도 명백하다.

미제 감시 하에서 진행되는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될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친미 주구들의 괴뢰 정권을 조작하는 것으로 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은 해방 후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선거 노름이 확증하여 주고 있다.

사실 상 유엔 감시 하의 선거를 운운하는 자들은 미제의 간섭과 비호가 없이는 자기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며 민족 자주적인 통일을 무서워하는 자들이다.

무엇 때문에 조선 인민이 자기 조국의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외국에 의존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 민족의 내부 문제를 양키들의 간섭에 맡겨야 하겠는가!

동서 고금의 여러 나라의 력사적 증거들은 그만 두고라도 우리 나라의 근세사와 해방 후 18 년간에 걸친 미제의 남조선 통치사가 외세 의존은 망국의 길이라는 교훈을 명확히 보여 주지 않는가!

리조 말엽에 송 병준, 리 용구, 리완용 등 친일 주구들은 일제와 결탁함으로써 민족을 팔아 먹고 당시 조선의 숨통을 졸라매면서도 나라의 《독립》이니 《평화》니 하고 뇌까렸던 것이다.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 승만, 장 면, 박 정희 등 력대 매국 배족의 무리들이 미제에 아부 굴종하고 그 친미 《반공》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조국 남반부를 오늘과 같은 파국에 몰아 넣었으며 미군 총검 하에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무권리와 부자유, 인간 생지옥의 참경에 빠지게 하였다.

생동한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외세 의존으로는 나라의 살림살이도, 조국의 통일 문제도 조선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증시하여 주고 있다.

조선 인민은 능히 외세에서 벗어 나 자기 힘으로 자기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구 상에 미국이 생겨나기 전에 수천 년간의 민족 문화를 창조한 우리 조선 인민은 외적들의 마수가 뻗칠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해 낸 애국적 전통과 단일 민족으로 형성 발전된 자주적 정신을 이어 받은 민족이며 백전 백승의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 로동당의 세련된 령도를 받고 있는 민족이다.

특히 해방 후 북조선에 창설된 새 사회, 새 제도, 새 생활은 조선 인민의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력력히 실증하여 주고 있다.

북반부 인민들은 당의 령도 밑에 자주성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 기지 창설 로선을 관철하였고 이 원칙에서 조선 민족의 새 나라를 세우고 인민 경제를 건설하고 민족 문화를 계승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오늘 북반부는 우리 민족이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자주,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요새로 전변되였다.

북반부에 축성된 이 물질 기술적 력량과 남반부 인민들의 힘을 합친다면 조선 민족은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으로 조국 통일과 민주 독립을 능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런데 남조선의 위정자들은 남북의 힘, 전 민족의 힘을 합치려고 할 대신에 《승공 통일》을 떠벌리면서 자주적 평화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승공 통일》이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다.

오늘날 조선 공산주의자들을 제쳐 놓고 분렬된 조국의 통일 문제에 대하여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민족적 권익의 철저한 옹호자이며 가장 철저한 애국자들이다.

일제 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형언할 수 없는 간난 신고를 다 겪으면서도 일편 단심 조국의 자유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손에 무기를 들고 15 성상이나 피어린 투쟁을 헌신적으로 전개한 사람들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이였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인민의 지도자로서 해방 후 북반부에서 국토와 나라의 재부를 개발하고 민족 경제의 터전을 마련하여 인민들을 잘 살게 하며 민족의 갱생과 번영의 대로를 개척하는 새 조국 창건의 위업을 달성해 놓았다.

이와 같이 조선 민족의 영구 번영의 길을 개척하고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자기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공산주의자들을 제쳐 놓고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는 인류 사회의 태양이며 조선 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의 《반공》 구호는 분할 통치를 유지하려는 방패에 불과한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결코 어느 일방이 타방을 굴복시키는 것으로 실현될 수 없다. 평화 통일은 오직 남북의 힘을 합치고 미군을 몰아 냄으로써만, 전 민족이 단합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민족의 주체적 력량과 자주, 자립 정신, 이것이 없이는 나라의 통일과 독립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완전한 민족적 자주권, 정치, 경제, 군사적 자주성—오직 이것만이 남조선에 조성된 현 파국적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 방도이며 조국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이다.

남조선에서의 자주성의 보장은 조국 통일을 위한 초미의 문제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이 외래 침략자들에게 유린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남북의 어느 일방이 자주적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외세의 예속 하에 있을 때에는 자주적 통일이란 실현될 수 없다.

오늘 남북 조선의 상반되는 현실은 엄연한 객관적 판단력을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남반부의 암흑상은 민족 자주, 자결권이 결여된 식민지의 산물이라면 북반부의 번영은 완전한 민족적 자주성의 산물이다.

북반부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압력도 받는 일이 없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우리 민족의 손에 그러한 자주권이 없고 강점자 미제가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의 지휘봉을 장악하고 있다.

일제의 패망 후 북반부에 진주하였던 쏘련 군대는 해방적 방조적 사명을 지니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일체 행정권을 우리에게 넘겨 주었었다. 그들은 우리 인민이 완전히 주권을 행사하며 자기 손으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경제적 혼란을 수습하며 자기의 자유로운 창조적 로력으로 새 조국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자 우리 인민이 요구하는 대로 지체 없이 돌아 갔다.

미제 침략자들이 강요한 전쟁의 준엄한 시기에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도와 주기 위하여 출전하였던 중국 인민 지원군도 정전 이후 우리의 요구 대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 군대는 맥아더가 자기의 첫 포고문에서 로골적으로 선포한 바와 같이 강점자로서 침략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남조선에서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틀어 쥐였으며 전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전쟁까지 도발하였다. 그들은 식민지 예속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인민의 저주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하게 아직도 물러 가려 하지 않는다.

남북 조선에 조성된 서로 판이한 사실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면에서 쌍방에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결

과를 가져다 주었다.

북반부에서는 우리 인민이 처음부터 자기의 손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자기의 정권을 수립하였으며 자기의 힘으로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자기 손에 국가 주권과 생산 수단을 튼튼히 틀어 쥐였다.

그러나 남조선을 강점한 미군은 조선 인민 자신이 창건한 인민 위원회들을 강제로 해산하고 군정을 선포하였으며 이러저러한 간판을 갈아 대면서 종래의 식민지 통치 기구를 연장하여 왔다.

미제는 남조선을 마치 자주적인 《주권 국가》인듯이 묘사하며 《민주주의》니, 《대의제 정부》니 하며 선전하여 왔지만 남조선에서 진행된 모든 《선거》란 완전한 허위 날조이며 《대한 민국 정부》란 미군의 총검에 의하여 조작된 침략자들의 위장물이며 일제 말기의 《만주국》의 재판이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 남조선의 군사 《정권》도 미제가 오래 동안 길러온 특무들을 조종하여 꾸며 낸 것이며 미제의 지시에 따라 친미 《반공》의 예속화 정책을 집행하는 괴뢰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오늘 남조선에서 사실 상 주권 행사를 하는 것은 미국 대사이다. 미국 대사는 워싱톤의 지령에 따라 남조선의 괴뢰 정권을 지휘 조종하며 괴뢰 정권의 주요 시책들을 작성하며 남조선의 산업, 재정, 금융, 교통, 운수, 무역, 농업 등 중요한 경제 정책들을 틀어 쥐고 좌지우지하고 있다.

4. 19 전후의 맥코노이, 《군사 정변》 전후 및 최근 시기 변장극인 《민정 이양》을 앞둔 버거 등의 행동은 식민지 총독으로서의 미국 대사의 역할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

남조선의 《경향 신문》도 《오늘의 정권은 그 한 초점을 미국 대사의 거동에 두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 정치적 위기가 래습할 때마다 국민은 미국 대사관 주변의 동정을 살피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리유는 설명이 무색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 위정자들은 우리 인민이 양키들에게 그 어떤 민족적 멸시와 모욕, 만행과 박해를 당해도 아무런 항의도 하지 못하며 어떠한 대책도 세울 수 없다.

미군과 미국인들의 어떠한 죄행도 《대한 민국 국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 양키들이 떠벌리는 미국식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구호는 모두 다 허위며 식민지 통치를 미화하려는 위장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괴뢰 정권이 어떻게 민족 자주권을 말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 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원조》의 미명 하에 남조선 경제의 악랄한 파괴자로 등장하였으며 완전한 지배자로 군림하였다.

1948년 《한 미 원조 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 제국주의자들은 《원조》의 미명 하에 무려 100여 억 딸라의 군사 장비와 잉여 상품을 남조선에 투입함으로써 남조선 경제를 더욱 철저히 딸라의 지배 하에 예속시키고 말았다.

미제는 소위 《원조》의 올가미로써 남조선 경제를 자기 수중에 장악할 수 있는 지배 체계를 수립하고 그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각종 《협정》들을 괴뢰 정권에게 강요하였다.

이 기간에 미제와 괴뢰 정권 간에 조작된 각종 협정들은 《한 미 경제 및 원조 협정》, 《경제 재건과 재정 안정에 관한 협약》 등을 비롯하여 무려 10 여 종에 달하는바 이 모든 불평등 조약 및 협정은 남조선 경제의 식민지 예속 관계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 《조약》 및 《협정》들에 기초하여 남조선 지배층은 미국 정부에 남조선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와 무제한한 감독권을 넘겨 주었으며 미국 독점 자본의 략탈할 길을 열어 주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서의 모든 재정 금융, 경제 계획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미제의 사전 검토와 비준의 대상으로 되였으며 남조선 경제의 명맥을 좌지우지할 특권이 부여되였다.

미제는 이에 기초하여 남조선 경제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공간을 조직하고 경제 명맥의 모든 고리에 침투하여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주권, 돈'궤, 쌀'독 등의 주인이 못 되면 누가 대통령, 누가 국무 총리가 되든 그들은 주권, 쌀'독, 돈'궤를 장악한 상전의 사환'군으로 밖에 달리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며 오늘 남조선의 정치, 경제, 군사의 내막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오늘 남조선 괴뢰 정부는 《주한 미 경제 협조처》의 승인이 없이는 《원조》 및 대충 자금의 한 푼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부터 관영 료금의 인상에 이르기까지 경제 생활의 전 령역에 걸쳐 그 어느 한 가지도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형편이다.

미제는 남조선에서 《원조》 물자에 의한 경제의 지배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남조선 공업과 농업을 미국 경제에 예속시키고 군사 경제의 부속물로 만드는 정책을 일관하여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 경제는 미국의 경제 《원조》가 없이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게 철저히 예속되였다.

그러나 북반부는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수 있었다.

북반부에는 원래 민족이 자립할 만한 경제적 토대가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전쟁의 페허 우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푼전을 쪼개 쓰며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를 닦아 놓았다.

우리는 필요한 거의 모든 기계 설비들과 기자재들을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중공업과 인민의 수요를 자기 상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공업을 창설하여 놓았으며 중공업, 경공업의 원료 기지를 튼튼히 마련하여 놓았으며 기술 인재를 자체로 다 양성하고 있으며 그 어려운 식량 문제도 자체로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자주권, 민족적 자주 독립을 고수하며 더욱 튼튼히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 담보로 된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로 생산한 공업 제품 및 화학 제품들을 가지고 당당하게 국제 무역, 국제 분업에 참가한다.

우리는 외국의 원조도 받았지만 완전히 주체적 립장에서 그것을 자립 경제를 건설할 목적에 적응하도록 타산하면서 받았고 또 그렇게 리용하였다.

우리는 모든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관철하는 방법에서도 누구의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주적 창발성을 발휘함으로써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였다.

우리 북반부에는 오래 전부터 실업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로동력이 부족할 정도로 생산이 급속히 확장되며 장성한다. 사회 문화 부문에서도 청소년들은 각급 학교에서 무료로 공부할 수 있으며 장년들도 일하면서 배울 수 있으며 병이 나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문제가 전연 다르다.

현대적 제강소 하나, 기계 공장 하나 없으며 수공업적인 소규모 공장들도 자체로는 원료와 자재를 보장할 수 없으며 미국의 잉여 량곡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주민의 식량을 해결할 수 없다.

실업자는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으며 모든 물가는 열병적으로 뛰여 오르며 만성적인 식량 기근은 해마다 우심하여 간다.

이러한 경제 형편에서 생산의 확장은 고사하고 단순 재생산도 어려운 현실이다.

남북 조선에서의 이와 같은 상반된 현실—북반부의 완전한 자립 경제와 남반부의 완전한 예속 경제는 자주성과

예속성이 각이하게 빚어 낸 필연적인 산물이다.

미제 침략자들은 남조선 군대의 통수권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며 미 군사 고문들은 괴뢰 정부의 국방부로부터 군단, 사단, 련대, 대대, 훈련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배치되여 괴뢰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 미제는 괴뢰군 장령들로부터 정기적으로 군사 문제 전반에 걸친 보고를 받으며 지시와 명령을 하달한다.

남조선 군대가 얼마나 철저히 미군에 예속되였는가 하는 것은 괴뢰 정부의 전 주미 대사란 자가 《현재 미국은 우리의 모든 무기를 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우리가 쓸 모든 휘발유를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도 2일간 사용할 분량만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방식에서는 크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다.》라고 실토한 데서도 넉넉히 알 수 있다.

미국 사람들 자신이 인정하는 것처럼 남조선 괴뢰군은 《미국 무장력의 연장이며 보충물》(미 군사 잡지 《군사 평론》)에 불과하다.

과연 총 한 방 쏘자고 해도, 휘발유 한 그람을 쓰자고 해도 미제의 지령을 받아야 하는 군대를 가지고 있는 데서 그 무슨 자주권을 론할 수 있겠는가.

이와는 정반대로 공화국 북반부는 군사 부문에서도 완전한 자주성을 발휘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이란 원래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압박과 사람들 간의 인권상 불평등을 반대하여 나선 사람들이며 그것을 청산하는 것을 목표로 싸우는 투사들이다.

이러한 공통적 리념과 목표를 가진 공산주의자들 사이에서 그 어떤 예속 상태나 압박 관계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국제적 범위에서 호상 보조를 맞추어 통일적으로 행동하며 서로 협조하는 것은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압박과 예속, 불평등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정책을 자주적으로 수립하며 독자적으로 집행한다.

공화국 정부는 모든 정책에 대하여 완전히 자주적인 까닭에 모든 대내 대외 정책을 우리 민족의 권익에 알맞게 수립하고 집행한다.

북조선은 대외 분야에서도 자주적 외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사 분야에서도 완전한 독립 국가로서 민족 보위를 위한 민족 군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철저한 자주성 원칙에서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우리 조국의 륭성 발전과 조선 인민의 민족적 리익에 완전히 부합되게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며 호혜적으로 협조한다.

우리는 민족의 권익과 자주권에 부합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외교 관계도 무역 관계도 설정할 수 없다는 립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자주적인 까닭에 조국 통일 문제를 자주, 평화,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언제나 조성된 정세에 상응하게 현실적인 방안을 주동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후에도 당과 정부는 남북 협상과 경제, 문화 교류를 루차 제의하였으며 남북 간의 련방제까지 제기하였다.

그러나 남조선 괴뢰 정권에게는 민족적 자주권이 없기 때문에 남북 조선 전체 인민들의 념원과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의 애국적인 제안들이 외세의 압력으로 인하여 모조리 거부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주 통일을 위한 똑똑한 방안 하나 내놓지 못 하고 있다.

혹은 남조선 당국이 인민의 압력에 못이겨 비록 북반부와의 초보적인 접촉이나 협상을 해 보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우선 상전의 눈치를 살펴야 하며 그의 배'속을 모르고는 아무 말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 한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 기 8 차 회의의 제의가 있었을 때, 남조선 통신 보도에 의하면 1960년 11월 29일 서울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는 《판문점에서 협상 회의를 개최하자는 북조선의 제안을 한국 관리들이 수락하려면 사전에 그들은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성명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미국 군대가 남조선에 있는 한, 그들의 식민지 통치가 계속되는 한 남조선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주 통일을 위한 그 어떤 효과적인 방책들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남조선도 북조선과 같이 외세의 간섭에서 완전히 벗어 나서 완전한 민족적 자주 자립을 실현해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완전한 자주성의 보장은 조국 통일을 위한 초미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 내고 남북이 합작하여야 한다

어느 민족의 력사에도 외래 제국주의 침략 군대에 의하여 국토가 강점되고 있는 조건 하에서 나라의 통일 독립이 보장된 일이란 없었다.

력사적 사실이 이러할진대 미제 침략자들을 조국 강토 안에 그대로 두고서는 조국 통일이 실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의 통일 문제는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과 분리하여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남조선 인민들은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체결된 일체 불평등 매국 조약 및 협정들을 폐기해 버려야 한다. 남조선에서의 미군 주둔을 무기한으로 허용한 《한 미 호상 방위 조약》을 비롯하여 미국에 대한 남조선의 예속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놓은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을 철폐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국군》의 지휘 통수권을 탈환하여야 하며 《국군》과 기타 모든 부문에 배치된 미국 《고문》들을 축출하여야 한다.

《국군》은 더는 미제를 위하여 복무하는 고용군이 되지 말아야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민족의 군대가 되여야 한다.

남조선 인민들은 국내 생활에 대한 미제의 일체 간섭을 단호히 배격하며 그들의 전쟁 준비 정책과 략탈 정책을 걸음마다 분쇄하여야 한다. 군사 시설의 건설과 군수 물자의 수송 및 공급을 거부하며 군용지로 빼앗긴 토지를 탈환하며 미군의 략탈, 강도 행위와 부녀자들 및 인민들에 대한 만행들을 결정적으로 저지시켜야 하며 미제 강점군에게 한 알의 쌀, 한 방울의 물도 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자들의 발붙일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제국주의를 반대함에 있어서 인민들의 단결보다 더 강한 무기란 없다.

민족적 단결이 없이는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를 더욱 파쑈화하며 민족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며 남조선을 계속 분할 통치하려는 미제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 병사, 청년, 학생, 지식인들, 중 소 상공업자들, 애국적 자산가들, 종교인들, 남조선의 각계 각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를 몰아 내기 위한 구국 투쟁에 총궐기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도하는 북반부의 애국적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의 애국적 민주주의 력량의 철저한 합작만이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로 된다.

남북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는 데는 제도의 차이, 사상의 차이가 장애로 될 수 없다.

오늘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도 공산당과 보수당 및 자본 계급 정당들과의 합작으로써 해방과 독립을 실현하며 민족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례가 적지 않다.

우리 나라에서도 1948년 4월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김 구씨를 비롯한 량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남북 련석 회의에서 반미 구국 대책을 토의하고 그

것을 실현하려고 공동으로 투쟁한 경험이 있었다.

본래 단일 민족인 조선 민족이 외세에 의한 일시적 분렬로부터 근본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어찌 제도나 사상의 차이 때문에 저해를 받아야 하겠는가.

더우기 그것은 민족의 사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합하고 협력하는 데 장애로 될 수 없다.

만일 진정으로 민족적 량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민족의 장래 운명을 진실로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는 이 길에서 물러 설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권익을 옹호하며 자주적 평화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과거와 정치적 견해 여하를 불문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이다.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미제의 악독한 민족 분렬 정책에 의하여 남북 간에 조성된 긴장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선 남조선에서 미국 침략 군대를 철거시키는 조건 하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을 데 대한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남북 조선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는 데 첫 걸음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간에 긴장 상태가 제거되면 우리는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다.

외제의 지배에서 벗어 나 우리 민족 내부 력량을 단합하고 협조하는 길이 애국 애민의 길이며 현실적으로 쉽게 실현될 수 있는 길이다.

북반부의 공업 지대와 남반부의 농업 지대를 련결시키며 전국의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남북 조선의 경제력을 동원한다면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 향상시킬 수 있다.

남북 경제 교류는 남조선에서 대대적인 관개 공사와 치산 치수 사업을 진행하고 대규모의 개간 사업을 추진시키며 현대적 농기계를 도입하는 등 농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할 것이다.

남북 경제 교류는 또한 시들어 가는 남조선 공업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게 될 것이며 원료 및 기자재를 공급하여 줌으로써 급속히 복구 재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남북이 합작만 하면 해결 못 할 문제란 없으며 돌파 못 할 난관이란 없다.

이와 같이 남북 간의 경제 문화 교류는 남조선 인민들의 참혹한 민생고를 능히 해결할 것이며 인공적으로 조성된 남북 간의 불신과 긴장 상태를 제거하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다.

이러한 기초 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 조선에 현존하는 사회 정치 제도를 당분간 그냥 두고 련방 기구를 통하여 민족 공동의 리해에 관한 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하는 련방제를 실시한다면 남북 간의 신뢰와 리해를 촉진시키며 정치 경제적 련계를 강화함으로써 조국의 완전 통일을 달성하는 데 새 국면을 열어 놓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중간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적 원칙에 기초한 전 조선적 총 선거에 의하여 통일적인 중앙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나라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남북의 합작은 국토 량단, 민족 분렬을 종식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타률적으로 분단된 단일 민족인 우리 민족이 자률적으로 환원하는 것은 응당한 론리의 귀결이다.

그러므로 남북 합작을 거부한다면 《민족적 앉은뱅이》로 굳어질 것이고 남북이 합작하는 날에는 남조선 정치 경제의 자주, 자립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결국은 《군사 분계선》도 사라지게 되고 통일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전 민족이 통일적 번영의 길에 들어 설 것이다.

기계 공업 발전에서의 새 단계

홍 성 주

최근 우리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에 상응하게 기계 공업을 한 계단 높이 올려 세우기 위하여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제시하였다.

당이 취한 금번의 이 조치는 전국의 기계 공업을 하나의 지도 체계에 통합하고 전문화 협동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과 기계 공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의 자동화 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방침은 확연히 구별되는 두 과제를 자기의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기계 공업의 조직과 관련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의 기술 발전과 관련한 것이다.

현 계단에서 이 두 과업은 기계 공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기본 방도들이다.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는 것—이것은 금번 당이 새로 제시한 방침의 한 측면이다.

오늘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한다는 것은 그의 현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기 위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 분산되였던 기계 공업을 기계 공업 위원회에 집중시키고 전문화 협동화의 원칙에서 기계 공업의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시기 우리 나라의 기계 공업은 전문적인 성에 집중화된 중앙 기계 공업과 지방 기계 공업 그리고 다른 부문 성 단위로 조직된 기계 공업을 병진시키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

경제 건설의 일정한 단계에서 기계 공업의 이러한 조직 형태는 필요한 것이였으며 긍정적인 것이였다.

지난 시기 우리는 대규모 기계 공업을 관리 운영해 본 경험이 어렸고 기술 간부가 부족하였으며 또 기계 공업 자체의 기술 수준도 낮았다.

그런데 전후 시기 우리의 기계 공업에는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이 부과되여 있었다.

원래 락후한 데다가 전쟁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페허로 된 조건에서 전후 시기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로 복구하고 새로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또 우리는 남이 한 발'자국 갈 때 열 발'자국 가며 남이 열발'자국 갈 때 백 발'자국 가는 속도로 모든 것을 빨리 건설해야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필요한 각이한 기계 설비를 한꺼번에 생산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당시 이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을 집중화된 기계 공업에만 의존하여서는 그것을 기동성 있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경제 건설의 일정한 단계에서 지방 기계 공업과 다른 부문 성 단위로 조직된 기계 공업으로 하여금 자체의 수요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게 하면서 집중화된 중앙 기계 공업은 나라의 경제 토대의 건설과 새로운 공업 기지의 창설에 힘을 집중하게 한 당의 조치는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였다.

그런데 사회주의 건설의 현 계단에 와서는 문제가 달리 서게 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는 크게 달라졌으며 기계 공업에 대한 그의 요구도 변동되였다.

우선 인민 경제의 물질적 토대가 정비되였고 생산이 비상히 장성되였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3개년 계획 기간에 이미 복구의 과업을 수행하였고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화의 토대를 축성하였으며 7개년 계획 첫 3년간에 그것을 보강하고 완비하여 왔다.

인민 경제가 정비되고 그것이 거대한 규모로 장성된 오늘에 와서는 기계 공업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였다.

오늘 우리의 인민 경제는 보다 성능이 높고 보다 기술 조건이 잘 구비된 기계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 공급해 줄 것을 기계 공업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제 4 기 제 7 차 전원 회의를 계기로 하여 앙양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고조는 현대적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를 격증시키고 있다.

우리의 인민 경제는 뜨락또르, 자동차, 엑스까와또르, 공기 압축기, 착암기 등의 대형 기계들과 소형 공작 기계, 수지 가공 설비 등의 경공업 기계 설비들, 전기 기관차 변압기 등의 철도 운수 기계 설비 등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기계 설비에 대한 인민 경제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기계 공업 자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났다. 과거 부속품이나 깎던 기계 공장들이 큰 기계 공장으로 발전되였고 현대적 기술로 장비된 수 많은 기계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현대적 기계 공장을 능숙하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경험도 축적되였고 간부 대렬과 기술 력량도 마련되였다.

이와 같이 기계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였고 기계 공업에 대한 인민 경제의 요구도 달라진 오늘에 와서는 기계 공업의 종래와 같은 조직 형태는 더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되였다.

기계 공업이 분산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가 결여된 데로부터 기계 공업의 부문 간, 기업소 간, 기종 간에서는 능력 리용에서 일정한 불균형이 생기게 되였다.

기계 공업성과 타성 산하 기계 공업 간의 설비 리용률 대비

기 계 공 업 성	100
전기 석탄 공업성	84
금속 화학 공업성	94
교 통 성	87

* 1963년 상반년 현재

만약 지금 가지고 있는 수백 개의 기계 공장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그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비하여 생산을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제품의 질도 현저히 제고하고 원가도 훨씬 저하시킬 수 있다.

기계 공업의 분산성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기술 력량의 효과적인 리용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의 전 과정은 현 시기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고 그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확립할 데 대한 문제를 성숙된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금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방침의 다른 한 측면은 기계 공업에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현 시기 당이 기계 공업을 정비하는 문제와 함께 자동화의 강력한 추진을 강조하는 근거는 어데 있는가.

그것은 우선 기계 공업이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 앞서 기술 혁명을 수행하고 그 앞장에 서서 인민 경제 전체를 기술 혁명에로 잘 이끌자는 데 있다.

당은 전면적인 기술 혁명을 7개년 계획의 주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그의 추진을 위하여 최대의 힘을 경주하고 있다. 기술 혁명이 급속히 실현되고 있는 오늘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기계화 및 자동화를 위한 기계 설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이 증대되는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무엇보다도 먼저 기계 공업 자체의 기술 개건을 하는 것이 긴절한 문제로 된다.

현 시기 기계 공업의 자동화가 강조되는 리유는 또한 그것이 기계 공업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당면한 방도로 된다는 데 있다.

오늘 우리 기계 공업은 높은 기술 발전 단계에 처해 있다. 이미 기계화가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자동화가 일정한 정도로 실현된 기계 공업은 지금 자동화의 강력한 추진이 당면한 과제로 되는 그러한 단계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기계 공업의 기술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있을 수 없다.

다음으로 기계 공업의 자동화를 그의 정비와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기계 공업의 정비가 지도에서 통일성을 보장하게 하며 생산에서 전문화 협동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자동화의 촉진을 위한 유리한 조건을 지어 주기 때문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에 상응하게 기계 공업을 더욱 발전시킴에 있어서 현 시기 유일하게 옳은 방도로 되는 것은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고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이다.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금번의 조치는 기계 공업 자체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나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우선 기계 공장의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시키고 높은 로동 생산 능률을 창조케 한다.

종업원 1 인당 생산성의 제고 정형

농업 위원회 남시 농기계 공장	121.2
교통성 평양 전기 기관차 공장	160
황해남도 신천 종합 기계 공장	125.4

* 개편되기 이전인 금년 7월에 비한 10월의 실적

이것은 전국의 기계 공업이 기계 공업 위원회에 집중된 결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계획화 사업이 개선되고 생산의 전문화가 강화된 데서 얻어진 것이다.

당의 새로운 방침을 실현하는 것은 현 시기 주되는 혁명 과업—종업원 1 인당 생산액을 가까운 년간에 2배 이상으로 제고시킬 데 대한 과업을 해결하는 기본 고리로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방침의 관철은 가장 적은 투자로써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여 나라의 자립적 경제 토대를 가일층 튼튼히 꾸리게 하며 우리 나라를 발전된 공업국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립적 민족 경제를 건설할 데 대한 당의 경제 건설의 기본 정책을 관철하는 사업의 중요한 일환으로 된다.

또한 새로운 방침의 관철은 기술 혁명의 실현을 촉진함으로써 인민들을 고된 로동에서 벗어 나게 하며 헐하고 문화적으로 일하게 하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임무를 해결하는 데서 큰 전진을 가져 오게 할 것이다.

*　　*

금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방침을 관철함에 있어서 선차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고 그의 생산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 계단에서 중공업을 강화하는 기본이며 기술 혁명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 문제이다.

기계 공업을 정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비 단계를 옳게 설정하고 전문화를 강화하는 원칙에서 생산 조직을 개선하는 것이다.

기계 공업의 정비 사업은 일정한 기간 현존 공장들의 생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장들의 실태와 생산 능력을 완전히 료해한 데 기초하여 생산의 전문화에 유리한 공장을 선택하고 생산을 점차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 공장으로부터 다른 공장으로 제품 생산을 이관할 때에는 반드시 생산을 2중적으로 조직하여 생산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비 사업에서 다음으로 중요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기계 공업에서 공작 기계의 기종 간 구성을 개선하고 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공작 기계의 기종 간 구성에서 부족점은 선반, 볼반 등의 보통 공작 기계에 비하여 치절반, 연마반 등의 특수 공작 기계와 대형 공작 기계들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보통 만능 선반 생산을 적게 하고 특수 공작 기계의 생산을 증대하는 동시에 그의 리용률을 높이는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기종 간 구성의 개선에서 현 시기 또한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생산 공정에 리용되고 있는 만능 공작 기계를 단능 기계로 교체하는 것이다.

이 교체는 귀중한 만능 공작 기계를 얻어 내게 할 뿐만 아니라 로동 생산성을 제고케 한다.

만약 덕천 자동차 공장과 기양 뜨락또르 공장들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모든 공정에 단능 기계를 도입한다면 거기에서 수백 대의 만능 기계를 얻어 낼 수 있고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자체로 단능 공작 기계를 생산하여 만능 기계와 교체하며 탐구된 만능 기계들로써 공구 직장, 기계화 직장들을 강화하며 새로운 생산 부문을 창설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공업을 정비하는 궁극의 목적은 생산의 전문화와 협동화를 일층 광범히 실시하자는 데 있다.

기계 공업이 통합된 새로운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된 것은 우선별로 생산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전문화 협동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기계 공장들의 기술 장비 생산 경험 립지적 조건 전망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타산한 기초 우에서 한 개 기업소씩 그의 성격, 규모, 발전 방향 등을 설정하는 것이다. 우선 인민 경제 모든 부문에서 다량적으로 소요되는 규격, 련결 부속품들—볼트, 낫트, 치차 등을 전문화함으로써 공무 직장들이 설비 보수에 필요한 개별 부속품 생산에 력량을 집중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 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금번 당이 제시한 새로운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기계 공업 자체에서 자동화 반 자동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기계 공업은 기계화를 계속 촉진시키는 동시에 기술 발전의 최고 형태인 자동화 및 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켜야 할 그런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기계 공업에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고 전반적 기술 수준을 높임으로써만 현존 로력과 현존 설비로써 생산을 배가할 데 대한 당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다.

기계 공장을 성능이 높고 자동화 반 자동화된 현대적 설비로 꾸리자면 무엇보다도 공작 기계 공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공작 기계 공업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이미 있는 공작 기계 공장들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일부 부족되는 부문을 확장하는 한편 새 공작 기계 공장의 증설도 예견해야 한다.

자동화 반 자동화를 촉진함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기계화 직장 실천 작업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자동화 반 자동화에서 우리는 국가에만 의존하려거나 또는 큰 것만 바라 보려고 하는 현상을 극복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일반 공작 기계에 능률적인 부대 장치 자동 장치들을 제작 도입하여 그의 성능을 높이며 생산 능률을 훨씬 제고해야 한다.

자동화 반 자동화의 촉진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자동화 모범 공장을 창조하고 자동화 사업 경험을 축적하며 기계 공업 발전에 널리 일반화해야 한다.

자동화된 새로운 기계 설비를 생산하자면 그에 필요한 각종 전기 기계 전기 기구 및 측정 수단의 생산을 강화함과 함께 소재 생산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재 생산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기계의 질과 가공 능률을 제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기계 공업 부문에서는 소재 생산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의 기술 장비를 강화하여 주물 주강 단조품을 비롯한 소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주물 생산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며 주물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물 생산의 전문화를 적극 실시하며 전 공정에서 원료 및 기술 관리를 개선하고 기술 공정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는 동시에 금형 주조, 정밀 주조 등 선진 주조 방법을 광범히 도입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기계 공장들에서 압연기, 연신기, 교정기 등 소재 재가공 설비를 갖추고 자체로 세밀한 각종 규격의 박판, 철선들을 생산해야 한다.

기계 공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계 공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그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일층 개선하는 것이다.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투적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기계 공업 자체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긴절히 요구된다.

기계 공업의 과학 기술적 토대를 강화함에 있어서 가장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설계 사업을 개선하는 것이다.

현 시기 질 좋은 기계를 생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설계 력량을 강화하며 일'군들에게 설계를 대담하게 맡기고 실천을 통하여 그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다. 또한 설계를 전망성 있게 발전시키며 그의 질을 결정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우리는 중요 공장에 대상별 전문 설계 기관을 조직하고 설계를 전문화하며 설계에 대한 엄격한 비준 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기술적 지도의 개선에서 표준화 규격화 사업의 강화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은 전문화 협동화의 발전과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준 설계를 작성하여 생산에 도입하며 광산 기계 치차를 비롯한 현존 설비들의 마모 부속품들을 최대한으로 통일시키며 볼트, 낫트 등 련결 부속품의 상용 규격을 표준화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자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기술 간부를 예견성 있게 양성하며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 문화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

기술 인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고등 교육 기관들에서는 기계 공학 및 자동화 리론을 전공하는 과학 기술 일'군들과 설계 일'군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양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계 공업 부문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는 기술 일'군들의 자질 향상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며 그들을 고착시키고 기술 분야에서 자기의 능력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 조건을 잘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로동자들 속에서 기술 학습과 기술 전습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동화된 생산 공정을 로동자들이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새로운 과학 기술적 토대 우에 올려 세우자면 또한 이 부문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현 시기 기계 공업에 대한 과학 연구 사업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과업은 우리 나라 실정에 적응한 새로운 기계들 특히 고도로 정밀하고 성능이 높은 자동 기계 자동화 기구를 창안 제작하며 현존 기계 공장들에 대한 합리적인 자동화 방법들을 연구해 내는 것이다. 이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현존 과학 연구 기관들의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계 공장 자체에서도 시험 연구실을 조직하고 기본 생산 제품에 대한 종합적 시험 연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우리 나라 기계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외국의 경험 그의 발전 동향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좋은 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적극적으로 섭취하여야 한다.

기계 공업에서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새 방침을 관철

하기 위하여서는 련관된 인민 경제 부문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금속 공업 부문에서는 특수강 경질합금을 비롯한 각종 금속 재료들을 재질별 규격별로, 화학 공업 부문에서는 합성 수지 절연물 도장 재료를 비롯한 각종 화학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 공급하며, 경공업 부문에서는 각종 지류와 다양한 특수 고무 제품을, 림업 부문에서는 목형 용재를 제때에 보장해 주어야 한다.

✻ ✻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킬 데 대한 당의 새로운 방침은 지금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벌써 많은 일들이 진행되였다.

우리는 이미 현실에서 새로운 방침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찾아 보게 된다. 앞으로 새로운 방침이 더욱더 큰 우월성을 나타내게 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지금 우리 앞에 나선 과업은 새로운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그의 우월성을 백방으로 발휘시키는 것이다.

당의 금번의 방침에 근거하여 기계 공업 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기계 공업 부문에서 대안 체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조치로 된다.

기계 공업 위원회의 조직은 기계 공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와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

기계 공업 부문의 일'군들은 새 체계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기계 공업의 생산 조직을 전문화 협동화의 원칙에서 개선함으로써 종래 그의 분산성으로 인하여 충분히 리용되지 못하였던 기계 공업의 능력을 생산 발전에 최대한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지도에서 고도의 조직성과 계획성을 보장하며 기업 관리 운영에 생산자 대중을 광범히 인입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새 체계가 지어 주는 유리한 조건에 의거하여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기계 공업의 자동화 반 자동화 수준을 급속히 제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강력히 추진시키는 문제는 현 시기 기계 공업 부문 당 조직들과 당원들 앞에 제기된 가장 중요한 혁명 과업이다.

이 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느냐 못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부문 당 조직들이 당의 방침을 어떻게 관철하는가에 크게 달려 있다.

당 조직들은 현 시기 기계 공업을 잘 정비하며 그의 자동화를 실현하는 것이 나라의 경제력 강화에서 얼마나 큰 의의를 갖는가 하는 것을 대중에게 잘 납득시키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높은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당의 이 새로운 방침의 관철에 한결 같이 나서도록 할 것이다.

각급 당 조직들은 이 사업의 집행 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급성 기관 본위주의 보수성 등 온갖 부정적 현상을 제때에 극복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 동시에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서 나온 새로운 싹을 적극 받아 들이고 조장 발전시켜야 한다.

기계 공업 부문 당 조직들은 근로자들을 자력 갱생의 혁명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킴으로써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케 하며 전 군중적 운동으로 자동화 기계, 자동화 기구들을 대량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당 조직들은 기계 공업 부문 간부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금번 타성으로부터 기계 공업 위원회에 새로 이관된 기계 공장들의 간부들을 꾸리며 그들의 지도 수준과 기술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다.

또한 기계 공업 부문 당 조직들은 기술자들 고급 기능공들과의 사업을 일층 개선하여 그들이 자기들의 기술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술자와 로동자들 간의 합작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다.

기계 공업 부문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붉은 편지를 받들고 현 시기 기계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된 전투적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양풍에 대하여

리 성 곤

양풍이란, 부르죠아들의 타락하고 퇴폐한 생활 양식이다. 양풍은 부르죠아들의 개인적 리해 타산과 금전 관계에 기초한 생활 양식이며, 황금으로 자기들의 속물적인 향락을 충족시키며 사람들을 희롱하는 비도덕적인 생활 양식이다. 특히 양풍은 극도로 타락하고 기생화된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심리와 인습 및 취미를 반영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 《미국식 생활 양식》에서 전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생활 양식에서는 쟈즈, 만보, 트위스트 등의 색정적이고 추잡한 노래와 춤이 《지상의 예술》로 간주되며 《곤두타지게 먹고》《진탕거리고》 노는 것이 삶의 전체 목적으로 된다. 또한 이 생활 양식에서는 렵기적이고 변태적이며 광신적인 오락과 걍그식의 협잡, 강도, 사기, 강간, 살인 등이 삶의 쾌락으로 간주된다.

부르죠아들은 양풍을 비단 저들의 속물적 취미의 충족물로서 뿐만 아니라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는 피착취 대중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오늘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의 사회 생활은 양풍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으며 또한 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 나라들에서 양풍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도 미제의 식민지화 정책에 의하여 양풍이 만연되였으며 그것은 인민 대중의 계급적 및 민족적 의식을 좀먹는 마취제로 되고 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양풍을 또한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자본주의에로 복귀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양풍을 사회주의 나라들에 침습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이러한 목적을 대변하여 사회주의 국가 내에 양풍을 전파하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양풍을 《시대적 류행》이니 《국제적 생활 양식》이니 하고 떠들면서 그것을 근로자들 속에 적극 류포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다. 그리하여 수정주의자들은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의 공산주의적 생활 규범과 질서를 파괴하며 무규률을 조성하고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며 그들을 정치-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양풍을 반대하는 투쟁은 제국주의와 현대 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측면을 이루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양풍과 현대 수정주의가 서로 밀접히 결합되여 있다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수정주의와 양풍은 사촌 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수정주의가 들어 오면 양풍이 들어 오고 양풍이 들어 오면 수정주의가 들어 온다.》

원래 사회주의 나라들은 그 제도의 본질로 보아 양풍과는 하등의 인연이 없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양풍은 적대되는 생활 양식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는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남아 있는 만큼 만일 그들 속에서 계급 교양이 부단히 강화되지 않고 안일과

해이가 묵과되거나 또 외부로부터의 양풍의 침투가 적극 방지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생활 양식에 물들 수 있다. 수정주의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들에서의 현실은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나라들에서의 양풍의 류행은 전적으로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의식적인 수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리용하여 한편으로는 나라를 《자유주의화》하고, 사회주의적 규률과 질서를 파괴하고, 계급 교양을 하지 않으며 다른 편으로는 양풍을 음으로 양으로 수입하여 전파시키고 있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이 양풍을 전파시키는 목적은 저들의 수정주의적 사상의 공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이며, 종국적으로는 부르죠아 제도를 복귀하기 위해서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어떠한 사상이 독자적인 사상 조류로서 형성되고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지지자들이 있어야 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이러한 지지자들을 얻기 위하여 양풍을 리용하고 있다.

양풍은 우선 부르죠아 사상 잔재가 농후한 서방 숭배자들, 혁명을 싫어하는 건달'군들, 특히는 부화한 청년들 속에서 인기를 획득한다.

청년들은 새 것에 민감하고 모든 것에 반응력이 강한 것으로서 특징적이다. 그런데다 아직 사회적 경험이 적고 혁명적 세련을 적게 받은 데로부터 진짜 새 것과 겉으로만 새 것으로 보이는 낡은 것, 옳고 그른 것을 정확히 식별하는 판단력이 부족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청년들의 이런 특성을 악리용하여 마치 청년들의 특성과 감정에 맞게 정책을 하는듯한 《인기 전술》로써 양풍을 전파하고 있다. 오늘 수정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나라의 건전치 못 한 청년들은 점차 양풍에 물젖어 들어 가고 있다.

양풍에 걸린 청년들은 젊은 패기와 정열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바칠 대신에 개인의 향락만을 추구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

양풍은 또한 혁명적 원칙과 지조가 약한 인테리들을 쉽사리 감염시키고 있다. 인테리들은 자기의 사업과 생활에서 혁명적 지조가 굳건하지 못 한 때에는 물밀듯이 들어 오는 양풍에 저항하지 못 하고 동요하게 되며 마침내는 그것에 물젖고 만다. 양풍은 특히 민족 허무주의와 서방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고 생활에서 안일하고 부화한 인테리들에게 쉽게 오염된다.

어떤 나라의 불건전한 작가, 예술가들은 양풍에 물젖어 《전 인류적 문학》, 《전 인민적 예술》을 운운하면서 문학 예술 창작에서 당성, 인민성을 거부하며, 《창작의 자유》, 《개성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실제에 있어서는 부르죠아적 자연주의 창작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양풍은 로동자, 농민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 계급적 바탕이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혁명이 오래 걸리고 생활이 풍만해지는 데 병행하여 혁명적 수양을 위한 교양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안일성이 나올 수 있으며 그리하여 양풍이 들어 올 때 그에 저항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만다.

사람들의 사상 의식에는 공허란 존재하지 않으며 공산주의적 사상 의식이 희박해지면 그 만큼 부르죠아 사상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일부 나라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견실했고 혁명가적 기풍이 강하였으며 외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와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헌신적이였던 로동자, 농민들, 혁명 투사들이 양풍에 걸려 계급적 립장을 저버리고 개인 향락에 빠지고 있는 것은 이를 실증하여 주고 있다.

양풍은 인민 대중의 정치-도덕 생활에 막대한 해독을 주고 있다.

양풍의 해독성은 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공산주의적 도덕 규범과 혁명적 생활 기풍을 파괴하고 속물적인 취미, 인습에 빠지게 한다는 데 있다.

양풍은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적 생활 규범에 기초하여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개인주의와 리기주의적 립장에 전락되여 생활하게 한다. 그리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노력하는 데서 삶의 영예와 행복을 찾을 대신에 오로지 개인의 리익과 저속한 향락을 삶의 전부로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와 인민을 위한 헌신성, 충실성, 창조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양풍에 걸리면 로동을 천시하며 점차 건달'군으로 전락되며 기생적인 생활을 즐기게 된다.

또한 인간들의 호상 관계에서 공산주의적 의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주의와 허위, 위선, 멸시적 감정과 심리가 작용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호상 관계에서 파렴치하고 잔인 무도해진다. 또한 생활에서는 검박하고 소박할 대신에 타태해지며 부화해지며 돈만 아는 속물적인 인간으로 전락된다.

양풍에 걸린 어떤 나라의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배터지게 먹는 것, 곤드라지게 마시는 것, 술'집에 찾아 가는 것, 영화를 구경하는 것, 미친듯이 차를 모는 것, 멋진 쟈케트, 새 춤, 새 미국 노래—이것은 생활의 요구이다. 돈이 필요하다. 돈만 있으면 만사는 나의 것이다.》

이러한 속물적인 인간으로 전락된 사람은 자기의 이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어떤 비인간적, 비도덕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감행한다.

그리하여 양풍에 걸린 어떤 나라의 속물적인 인간들은 사회주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모리 간상 행위와 사기, 횡령, 협잡을 일삼으며 지어 도적, 강간, 살인의 만행까지 감행하고 있다.

양풍의 해독성은 또한 사람들을 정치-도덕적으로 타락시킴으로써 결국은 인민 대중의 근본적 리익과 혁명의 리익을 배반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데 있다.

양풍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일신 상 평안과 안녕만을 념려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는 계급적 지조와 절개도 저버리며 혁명가로서의 원칙과 량심도 다 집어 던진다. 계급적 의식은 마비되고 정치에는 암둔해진다.

양풍에 걸린 사람들은 정치와 혁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며 특히 계급적 원쑤들과의 판가리 싸움에 대해서는 질겁한다. 양풍에 걸린 자들은 될 수 있는 한 혁명과 투쟁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며 안온과 태평만을 찾으려 한다.

오히려 이것을 위하여 나라의 《자유주의화》를 고창하며 혁명적 규률, 질서를 반대하며 지어 당의 통제와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반대하여 나선다. 이것은 사실에 있어서는 부르죠아 사회의 복귀를 요구하여 나서는 반역적인 행위이다.

양풍의 해독성은 또한 부르죠아 사회 특히 미국을 숭배하는 사상을 고취한다는 데 있다.

양풍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생활에서 가정용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미국제》, 《미국식》이 아니면 싫다는 식으로 되여 간다. 그리하여 이런 자들은 《미국 제품》을 사기 위해서라면 염치도 체면도 다 저버리고 발광증을 부린다. 길 가는 외국 사람을 붙 잡고 그 미국 상표가 붙은 쟈케트와 잔바를 당장 벗어 팔라고 한다. 지어 어떤 자들은 미국에 의존하며 미제와 협조할 때만이 잘 살 수 있다고까지 생각한다. 그리하여 미국에 가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간주하며, 미국인으로 태여나지 못 한 것을 한탄한다.

이렇게 미국 숭배 사상으로 물젖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혁명가로서의 민족적 자부심, 주체와 자력 갱생의 정신이 있을 리 만무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이 있을

리 만무하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인민 대중을 양풍에 물젖게 함으로써 바로 미국 부르죠아 앞에 아부와 양보, 굴종하는 비굴한 정신을 조장시키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양풍과 같은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이 나타나기만 하면 사회적인 여론, 비난에 의하여 견디지 못하며 배격 당하고 만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는 양풍의 안내자인 수정주의가 발을 붙일 수 없기 때문이며 또 당의 옳은 계급 교양에 의하여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혁명 의식이 부단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자만할 근거는 없다. 우리도 안일해지면 내외의 계급적 원쑤들에 의하여 양풍이 밀수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항상 혁명적 생활 기풍을 견지하도록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맑스-레닌주의와 로동 계급의 혁명적 의식, 우리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급적 관점과 우리 당의 사상 체계로 무장하며 사대주의, 민족 허무주의 사상을 극복하고 주체 사상과 자력 갱생의 정신을 높이며 혁명적으로 살며 일하기 위하여 투쟁할 때 양풍 따위의 저속한 생활 양식이 붙을 수 없다.

특히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한다. 항일 빨찌산들처럼 일편 단심 혁명을 위하여 지혜와 정력을 바치는 투사에게는 낡은 생활 양식이 붙을 수 없다.

양풍을 반대함에 있어서 또한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적 도덕 교양을 적극 강화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적 도덕은 인류 력사 상 가장 고상한 도덕이다. 그러므로 공산주의 도덕 원칙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며 일할 때 이와 배치되는 온갖 낡은 인습, 취미를 제때에 폭로하며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양풍이 침습하지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의 문화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옳은 미적 관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수준이 높고 옳은 미적 관점에 설 때 생활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 고상한 것 등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고 그것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으며, 더럽고 추잡한 것, 저속한 것을 증오하며 그와 성과적으로 투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문화 수준을 높이며 정확한 미적 견해를 가지도록 부단히 학습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들에게 혁명적인 생활 기풍이 철저히 확립될 때, 우리들이 혁명적으로 사고하며 건전할 때 양풍 따위의 부르죠아 생활 양식과 현대 수정주의가 발붙이지 못 할 것이며 또 이와 견결히 투쟁할 수 있다.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의 두 로선

—《인민 일보》 및 《홍기》 편집부 론설—

온 세상이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하여 론의하고 있다.

가증한 제국주의 제도는 세계 인민들에게 무수한 전쟁을 가져다 주었으며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의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제국주의 전쟁은 인민으로 하여금 커다란 고난을 겪게 하였으며 동시에 인민에게 교훈으로 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 인민은 전반적으로 강력하게 세계 평화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수호하자면 반드시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세계 맑스-레닌주의자들은 평화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념원을 신중히 고려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나갈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제국주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그들의 기만을 폭로하고 그들의 전쟁 계획을 파탄시킬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대중을 교양하여 대중의 각성을 높이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정확한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과는 반대로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제국주의 정책의 수요에 따라 제국주의를 방조하여 허위로써 대중을 기만하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인민들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며 이 투쟁을 약화, 파괴하며 제국주의의 새 전쟁을 위한 준비 계획을 엄호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로선과 수정주의의 로선은 근본적으로 대립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로선은 세계 평화의 수호에 유리한 정확한 로선이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맑스-레닌주의 당들과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로선이다.

수정주의의 로선은 새 전쟁 위험을 조장시키는 그릇된 로선이다. 그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쏘련 공산당 제 20 차 대회 이후 점차 발전시킨 로선이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공개 서한과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수 많은 발언들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많은 허위들을 날조하여 중국 공산주의자들을 비방 중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이 문제에 대한 의견 상이의 본질을 은폐하지는 못 하였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의 로선과 수정주의의 로선 간의 주되는 의견 상이를 아래에 분석하려 한다.

력사적 교훈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에로 발전된 후 전쟁과 평화 문제는 계속 맑스-레닌주의와 수정주의 간의 투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로 되여 왔다.

제국주의는 현대 전쟁의 근원이다. 제국주의의 평화로 가장하는 기만 정책

과 전쟁 정책은 교체되면서 적용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흔히 평화라는 거짓말로 저들의 침략 죄행과 새 전쟁 준비를 은폐하고 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평화로 가장하는 제국주의의 기만을 반대하여 투쟁하라고 각국 인민들에게 꾸준히 호소하였다.

레닌은 제국주의 정부가 《말로는 강화와 공정을 운운하나 사실에 있어서는 침략적인 강탈 전쟁을 수행》(레닌 전집 제 26 권, 311 페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쓰딸린은 제국주의자들이 실시하는 평화주의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즉 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평화란 요란한 언사로 대중을 기만》(쓰딸린 저작집 제 6 권, 391 페지)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제국주의적 평화주의를 평화의 도구라고 생각들 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제국주의적 평화주의는 전쟁 준비의 도구이며 또 이 전쟁 준비를 평화에 관한 위선적 언사로써 은폐하는 도구이다. 이러한 평화주의와 또 그 도구인 국제 련맹이 없이는 현 정세 하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쓰딸린 저작집 제 11 권, 279~280 페지)

레닌, 쓰딸린과는 반대로 제 2 국제당의 수정주의자들, 로동 계급의 반역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이 대중을 기만하는 것을 방조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이 두 차례의 세계 전쟁을 도발하는 데 있어서 흉악한 방조자로 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 이전에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를 대표자로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허위적인 평화의 언사를 다하여 인민의 혁명적 의지를 마비시키며 제국주의자들의 세계 전쟁 준비 계획을 은폐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을 전후하여 로 수정주의자들은 평화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국 제국주의 정부의 편에 서서 세계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을 옹호하여 나섰으며 국회에서 군사비 지출에 찬성 투표하였으며 《조국 보위》의 허위적 구호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 로동자 형제들을 학살하는 전쟁에로 자국의 로동 계급을 내몰았다.

제국주의자들이 제국주의적 조건에 따라 휴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였을 때 카우츠키를 대표로 하는 수정주의자들은 또다시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원칙에 립각하여 서로 량해하는 평화보다 더 우리로 하여금 행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없다.》①고 하는 감언 리설로 인심을 유혹하고 혁명을 반대하였다.

제 1 차 세계 대전이 종식된 후 배신자 카우츠키와 그의 계승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기만의 나팔수로서 더욱 공공연히 복무하였다.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자들은 수 많은 허위를 류포시켰다.

(1) 그들은 제국주의를 미화하고 세계 인민의 투쟁의 시선을 딴 데로 돌렸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 평화에 대하여 말한다면 제국주의로부터의 위협은 여전히 미소한 것이다. 동방의 민족적 지향과 각이한 독재로부터 오는 위험이 더욱 크다.》②

이것은 전쟁의 근원이 제국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방의 피압박 민족들과 위대한 평화의 성새인 쏘베트 국가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2)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을 도와 새 전쟁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대중의 투지를 마비시켰다. 1928년에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약 지금 누가 제국주의 전쟁의 위험성을 아직도 운운한다면 그는 우리 시대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전통적인 도식에 기초하는 자이다.》③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제국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간주하고 있는 자는 《력사에 대한 숙명론적인 리해의 신봉가이다.》④라고 주장하였다.

(3) 그들은 전쟁이 전 인류를 소멸시킨다는 론조로써 인민 대중들을 위협하였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다음 번 전쟁은 빈궁과 재난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모든 문명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인바 남는 것은(적어도 구라파에서) 전후에는 오직 연기나는 폐허와 썩고 있는 시체들 뿐일 것이다.》⑤ 낡은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지난 전쟁은 전 세계로 하여금 매우 커다란 재난을 당하게 하였는바 다음 번 전쟁은 전 세계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다. 새 전쟁을 준비하는 이 하나의 사실은 세계를 괴멸시킬 수 있다.》⑥

(4) 그들은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 간의 계선을 가르지 않았으며 혁명을 허용하지 않았다. 1914년에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 정세 하에서 일반적으로는 민족들에게, 특수적으로는 프로레타리아트에게 불행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전쟁이 유익하며 어떠한 전쟁이 해로운가에 대하여서가 아니라 어떠한 수단으로 위협적인 전쟁을 방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토의하였다.》⑦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구한 평화에 대한 지향은 모든 문명한 국가들의 광범한 대중을 더욱더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지향은 우리 시대의 진실로 크나한 문제를 2 차적인 것으로 일시 밀어 놓는다.》⑧

(5) 그들은 무기 만능 리론을 광고하였고 혁명적인 무장 투쟁을 반대하여 나섰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래의 혁명적 전투들이 무력에 의하여 더욱 드물게 결정될 것이라는 원인의 하나는 이미 여러 번 명백히 지적된 바와 같이 보통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하여 현대 국가 군대의 무장이 거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에 있는바 이 우월성은 통례로 반항에 대한 사민들의 임의의 시도를 최초로부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⑨

(6) 그들은 군비 축소에 의하여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다는 그릇된 리론을 류포시켰다. 베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에 평화를 확립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라! 우리는 앉아 쉬여서는 안 된다. 사회로 하여금 순풍에 돛단 배처럼 앞으로 발전하게 하며 국제적 협정과 군비 축소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각 민족의 일률적인 권리,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⑩

(7) 그들은 군비 축소에 의하여 절약된 자금으로 락후한 나라들을 원조할 수 있다는 그릇된 리론을 류포시켰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서구라파의 군사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많은 자금으로 중국, 페르샤, 토이기 및 남미 등 지역에서 철도를 부설할 수 있는바 이러한 공사들을 〈용감한 배〉를 건조하는 데 비하면 그것은 공업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된다.》⑪

(8) 그들은 제국주의의 《평화 전략》 작성에 기여하였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문명한 구라파의 각 민족들(미국인들도 마찬가지이다)은 군함과 비행기에 의거하는 것보다 자기의 경제 및 문화적 수단에 의거하는 것이 근동과 극동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더욱 유리할 것이다.》⑫

(9)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조종 하에 있는 국제 련맹을 높이 떠받들었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제 련맹의 존재 자체만 하여도 평화 위업의 위대한 성과로 된다. 이 조직은 평화를 수호함에 있어서 그 어떠한 기구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수단을 제공한다.》⑬

(10) 그들은 미제에 의거하여 세계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는 환상을 류포시켰다. 카우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다. 미국이 국제 련맹에서 또는 국제 련맹과 함께 전쟁 방지에 노력한다면 그것은 국제 련맹으로 하여금 불가항적인 것으로 되게 할 것이다.》⑭

레닌은 카우츠키와 같은 자들의 추악한 면모를 무자비하게 폭로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자들의 평화주의는 《인민들에 대한 위안으로서의, 제 정부가 앞으로 제국주의적 살륙에서 대중을 순종시키는 것을 쉽게 해 주는 수단으로》(레닌 전집 제 23 권, 308 페지) 될 것이다.

쓰딸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민주주의가 제국주의적 평화주의를 로동 계급 속에 끌어 들이는 주요한 매개자이며 따라서 사회 민주주의는 새 전쟁과 무력 간섭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로동 계급 내에 있는 자본주의의 중요한 지주이라는 것이다.》 (쓰딸린 저작집 제 11 권, 280 페지)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흐루쑈브 동지의 발언을 한 번 읽어 보고 흐루쑈브의 언론과 베른슈타인 및 카우츠키의 언론을 비교하여 보기만 한다면 흐루쑈브의 견해가 결코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제 2 국제 당 수정주의의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류의 운명과 관계되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 있어서 흐루쑈브는 베른슈타인과 카우츠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력사적 경험은 이것이 전 세계 평화 위업에 극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 세계 평화를 효과적으로 고수하고 새 세계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흐루쑈브의 그릇된 로선을 거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반대하여 나서지 않을 수 없다.

최대의 기만

세상에는 지구 상의 평화의 주되는 원쑤를 평화의 사도로 묘사하는 것보다 더 큰 기만은 없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이태리 및 일본 파시스트들을 대신하여 나선 미제는 세계에 전례 없는 대제국을 수립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미제의 《세계 전략》의 변함 없는 목적은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놓여 있는 중간 지대를 침략하여 이 지대를 저들의 통제 밑에 두며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의 불'길을 꺼버리며 나아가서 마침내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청산하고 전 세계에 대한 제패를 확립하는데 있다.

이러한 세계 제패를 달성하려는 자기의 탐욕스러운 야욕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제는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이후 18 년 동안에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계속 부단히 침략 전쟁을 감행하며 반혁명적 무장 간섭을 실현하고 있으며 악랄하게 새 세계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제반 사실들은 제국주의가 여전히 현대 전쟁의 근원이며 우리 시대에 있어서 침략과 전쟁의 주되는 세력은 미 제국주의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에 명백하게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미제의 두목들을 평화 애호적 활동가로 보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정세를 건전하게 평가할 능력이 있는 《리성적인》 사람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와 케네디가 이 《리성적인》 사람들의 대표자로 되여 있다.

이전에 흐루쑈브는 아이젠하워가 《자국 인민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며 《평화를 진정으로 념원》하고 있으며 《우리와 마찬가지로 역시 평화를 보장할 데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였다.

지금 흐루쑈브는 또다시 케네디가 아이젠하워보다도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흐루쑈브의 발언에 의하면 케네디는 《평화 유지에 대하여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지구 상에서의 평화로운 생활과 창조적 로동을 위한 믿음직한 조건의 보장》을 그에게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를 전파하고 제국주의를 미화함에 있어서 흐루쑈브는 제 2 국제 당의 수정주의자들과 꼭 같이 열성을 발휘하고 있다.

공개 서한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는 이러한 허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들은 《모든 부르죠아 정부들이 자기들의 모든 사업에서 정말로 온갖 리성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맑스-레닌주의의 초보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계급 사회에서 초계급적 리성이란 도대체 존재하지 않는다. 프로레타리아에게는 프로레타리아적 리성이 있으며 그리고 부르죠아에게는 부르죠아적 리성이 있다. 리성이란 자기 계급의 근본적 리익에 따라 정책을 작성할 줄 알며 자기 계급의 근본적 립장에서 행동할 줄 아는 것이다. 케네디 따위의 리성은 미국의 독점 부르죠아지의 근본적 리익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바 그것은 즉 제국주의의 리성이다.

세계 무대에서 계급 력량 관계가 제국주의에 더욱더 불리하게 되고 미제가 실시하는 침략과 전쟁 정책이 거듭 실패를 겪는 조건 하에서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 자주 평화의 가면으로 자기를 가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실로 케네디는 평화에 대한 미사려구를 잘 던질 줄도 알며 온갖 평화적 수법을 쓸 줄도 알고 있다. 그러나 평화의 가면 밑에 실시하는 그의 기만 정책은 그의 전쟁 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두 미제의 《세계 전략》에 복무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은 미제의 《법과 정의에 기초한》 《자유 세계 제국의 공동체》에 온 지구를 통합할 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케네디의 《평화 전략》의 기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평화적인 수단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미국의 신식민주의를 부식시키는 것;

평화적 수단으로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과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침투를 실현하고 그 나라들을 자기의 통제 밑에 두는 것;

평화적 수단으로 사회주의 나라들을 유고슬라비야식 《평화적 진화》의 길로 떠밀어 넣는 것;

평화적 수단으로 전 세계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약화시키고 파괴하는 것이다.

유엔 총회에서 한 최근의 자기 연설에서 케네디는 교만하게 미국과 쏘련 간의 평화 유지를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선포하였다.

(1)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을 서독에 병합할 것;

(2) 사회주의 꾸바의 존재를 용허하지 말 것;

(3) 동구라파 사회주의 나라들에 《자유로운 선택》의 길을 제공할 것, 즉 이 나라들에서 자본주의 복구를 실현할 것;

(4)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에 대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지지를 허용하지 말 것;

될 수 있는 대로 《평화적 수단》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도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수법들 중의 하나이다.

자기의 지배를 보존하며 대외 팽창을 실현할 목적으로 반동 계급들은 항상 량면 수법 즉 목사들의 기만적 수법과 교형리들의 진압의 수법에 변함 없이 의거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평화의 가면을 쓴 기만 정책과 전쟁 정책은 언제나 서로 보충하며 서로 도와 주고 있다. 미국 독점 부르죠아지의 대변자인 케네디의 리성은 그가 오직 더욱더 교활하게 이 량면 수법을 적용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반동적 지배 계급들이 의거하는 주요한 수법은 변함 없이 폭력이며 그리고

목사와 같은 기만은 폭력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세력 범위의 분할에 있어서 제국주의자들은 항상 힘의 립장에 의거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케네디는 아주 명백하게 언명하였다.

그는 《결국 평화 유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최종적으로 우리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며 그리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케네디가 정권에 들어 앉은 이후 소위 《신축성 있는 반응 전략》을 실시하면서 하나의 《다양한 군사 력량》을 시급히 창설하며 《전면적 실력》을 강화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전면 전쟁이거나 제한된 전쟁이거나 또는 핵 전쟁이거나 보통 전쟁이거나 큰 전쟁이거나 작은 전쟁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든 전쟁을 진행할 수 있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

케네디의 이러한 무모한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의 군비 경쟁과 전쟁 준비는 전례 없는 규모에 달하였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일부 자료들을 보기로 하자.

(1) 미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1960 회계 년도에 467억 딸라였던 것이 1964 회계 년도에는 600억 딸라로 증대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는 평화 시기와 그리고 지어 조선 전쟁 시기에 지출한 수준을 초과하는 최고의 수준으로 되는 것이다.

(2) 얼마 전에 케네디는 최근 2년 남짓한 기간에 미국 《당직 전략 무력》의 관할 하에 있는 핵 무기의 수량은 2배로 증가하고 상시적인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륙군 사단수는 45% 장성하였으며 수송 비행기에 대한 주문량은 175%나 증가하고 《특수 게리라 부대》와 《반란 진압 부대》의 인원 수는 약 5배로 장성하였다고 말하였다.

(3) 미 전략 목표 합동 계획 참모부는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핵 전쟁 진행 계획을 작성하였다. 미 국방 장관 맥나마라는 금년 초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심의되는 기간에 쏘련의 거의 모든 〈연하고〉(지상의) 〈절반 굳은〉(반 지하의) 군사 목표들과 그의 아주 공고한 많은 로케트 발사장들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우리는 도시 구역과 공업 구역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 앞으로 공격하기 위한 예비로 되는 잘 보호된 무력을 갖게 될 것이다.》 미국은 사회주의 진영을 겨누고 있는 자기의 로케트-핵 기지망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으며 유도탄으로 장비된 해외의 핵 잠수함대의 배치를 현저히 강화하였다.

동시에 미국의 지휘 하에 있는 나토군은 금년에 동방으로 진출하여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과 체코슬로바키야의 국경 지대에까지 바싹 접근하였다.

(4) 케네디 정부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자기 군사적 배치를 강화하였으며 이 지역 인민들의 혁명 운동을 진압하는 데 리용할 목적으로 미 륙 해 공군 《특수 작전 부대》를 현저히 확장하였다.

미국은 남부 월남을 《특수 전쟁》의 시험장으로 전변시켰다. 남부 월남 주둔 미군수는 1만 6천 명을 릉가하였다.

(5) 케네디 정부는 전쟁 지휘 기관들을 강화하였다. 케네디 정부는 《타격 사령부》를 설치하였는바 그의 관할 하에 륙군과 공군의 혼성 부대가 있다. 이 부대들은 항상 고도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 도발을 위하여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송될 수 있다. 케네디 정부는 지상 및 지하 전국 군사 지휘 쎈터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비행기와 군함들에 각각 비상 공중 지휘소와 비상 해상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이 사실들은 미 제국주의자들이 현 시기 가장 포악한 군국주의자들이며 새 세계 대전의 책동자들이며 전 세계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로부터 미 제국주의자들이 비록 호루쑈브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에게 찬송가를 불러 주어도 그들이 그 어떤

황홀한 천사로 되지 않았으며 호루쑈브가 향'불을 피워 놓고 그들에게 절을 하여도 그들이 인자한 보살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루쑈브가 제아무리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하더라도 그들은 호루쑈브의 체면을 보아주지 않는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더욱더 새로운 침략 및 전쟁 책동을 감행하면서 평화 제창자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있으며 따라서 호루쑈브의 뺨을 련속 때리고 있다. 이것은 제국주의를 미화 분식하고 있는 호루쑈브의 모든 날조가 비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제의 비호자로 나서기를 그처럼 즐겨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매우 슬픈 일이다.

새 세계 대전 방지의 가능성 문제에 대하여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는 새 세계 대전을 맹렬히 준비하고 있으며 따라서 전쟁의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사실을 인민 대중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러나 새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견해는 언제나 아주 명백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모 택동 동지는 전후의 국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새 세계 대전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명제를 내놓았다.

벌써 1946년에 모 택동 동지는 미국 기자 안나 루이스 스트롱과의 유명한 담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 2 차 세계 대전이 결속된 지 오래지 않은 오늘날 미국 반동파들이 이처럼 요란스럽게 미 쏘 전쟁을 강조하면서 란장판을 이루고 있으니 사람들은 그들의 실제 목적을 캐여 보지 않을 수 없다. 원래 그들은 반쏘 구호 밑에서 미국의 로동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을 미친듯이 진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외 팽창의 모든 대상국들을 미국의 부속물로 만들고 있는 판이다.

미국 인민 그리고 미국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는 일체 국가의 인민들은 단결하여 미국 반동파 및 각국에 있는 그 주구들의 진공을 반대하여야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투쟁이 승리하여야 제 3 차 세계 대전을 피면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피면할 수 없다.》

(모 택동 선집 조문 판, 제 4 권, 1842 페지)

모 택동 동지는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당시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 각국의 반동들은 반쏘적이며 반공산주의적이며 반인민적인 활동을 날로 강화하고 있었다. 그들은 《미국과 쏘련 간에 반드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며 《제 3 차 세계 대전은 필연적으로 발발할 것이다.》고 고아댔다.

장 개석 반동도 또한 중국 인민을 놀래울 목적으로 이와 같은 선전을 광범히 전개하였다. 그 당시 일부 동지들은 이와 같은 공갈에 겁을 먹고 미제의 지지를 받는 장 개석 반동의 무력 침공에 직면하여 나약성을 나타냈으며 반혁명 전쟁에 대하여 감히 혁명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하려고 하지 못 하였다.

모 택동 동지는 이와 반대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는 만일 세계 반동 세력을 반대하여 결정적이고도 효과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면 새 세계 대전을 피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모 택동 동지의 이와 같은 과학적인 결론은 중국 혁명의 위대한 승리에 의하여 확증되였다.

중국 혁명의 승리는 국제 무대에서의 계급 력량 호상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다.

1950년 6월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국주의 진영으로부터의 전쟁의 위협은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제 3 차 세계 대전의 발발의 가능성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의 위협성을 방지하며 제 3 차 세계 대전의 발발을 저애하는 전투적 력량은 대단히 급속히 장성하고 있으며 전 세계 대다수 인민 대중의 각오 정도가 제고되고 있다. 전 세계의 공산당들이 가능한 모든 평화와 민주주의 력량을 계속 단합시키고 이 력량의 가일층의 발전을 달성한다면 새 세계 대전은 방지될 수 있다.》(《인민 일보》 1950년 6월 13일 부)

1957년 11월 각국 형제 당 대표들의 회의에서 모 택동 동지는 제 2 차 대전의 종결 후 국제 관계에서 일어 난 변화들을 상세히 분석하고 현 국제 정세의 발전이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그는 이러한 정세를 형상적으로 특징짓기 위하여 중국의 한 고전 소설에서 취한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리용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현 국제 정세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즉 사회주의 력량이 제국주의 세력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고 생각한다.》(선집 《제국주의와 모든 반동들은 종이범이다》)

모 택동 동지는 국제 무대에서의 계급 력량 관계를 분석한 데 기초하여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그는 완전히 명백히 《동풍》의 개념에는 사회주의 진영, 국제 로동 계급, 공산당들,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국가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며 《서풍》의 개념에는 다만 전쟁 세력들인 제국주의와 반동들만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비유의 정치적인 뜻은 극히 명백하며 적절한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표현을 지리적인, 인종적인, 혹은 기상학적인 개념으로 외곡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제국주의자들로부터 호의를 얻고 구라파와 북미에서의 민족 배타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서방》 대렬에 끼여 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모 택동 동지가 《동풍이 서풍을 압도하고 있다.》는 명제를 내놓은 것은 역시 주로 새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였으며 사회주의 국가들이 평화적 환경에서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였다.

우에서 지적한 모 택동 동지의 명제들은 중국 공산당이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견해이다.

이로부터 중국 공산당이 《새 세계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고의적으로 날조해 낸 요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로부터 제 3 차 세계 대전의 방지에 관한 명제는 맑스-레닌주의자들이 오래 전에 내놓은 것이며 결코 쏘련 공산당 20 차 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며 흐루쑈브의 그 어떠한 창조도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흐루쑈브가 참말 조금도 창조한 것이 없는가? 아니다. 창조한 것이 있기는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의 이러한 이른바 창조란 결코 맑스-레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수정주의적인 것이다.

첫째로, 흐루쑈브는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서만 운운하고 세계 대전의 위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멋 대로 말하고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새로운 세계 대전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제국주의자들이 세계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동시에 지적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오직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지적하고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며 두 방면에 준비를 갖춤으로써만 군중을 동원하여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을 진행하는 데 유리하며 동시에 제국주의가 일단 세계 전쟁을 세계 인민들의 머리 우에 들씌울 때에는 사회주의 국가 인민들과 전 세계 평화 애호 국가 인민들이 무준비 상태에 처하여 손쓸 사이 없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흐루쑈브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새 전쟁을 획책하고 있는 제국주의의 위협을 폭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들의 론거에 의한다면 제국주의는 실제 상 이미 평화 애호적인 제국주의로 변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을 방조하여 대중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며 제국주의가 획책하는 새 전쟁 위협 앞에서 군중으로 하여금 경각성을 잃게 하는 것이다.

둘째로, 흐루쑈브는 새 세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제멋 대로 보며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레닌주의의 리론은 이미 낡았다고 간주하고 있다.

새 세계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한 가지 측면이고 혁명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한 측면이다. 량자를 혼동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쟁을 산생시킬 수 있는 토대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레닌이 많은 과학적인 연구를 거쳐 발견한 객관적 법칙이다.

1952년 쓰딸린은 새 세계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리론을 내놓으면서 《전쟁의 불가피성을 제거하려면 제국주의를 청산하여야 한다.》(《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경제 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정확하였으며 흐루쑈브는 오유를 범하였다.

력사는 제국주의가 도발한 세계 전쟁은 두번 밖에 안 되나 제국주의가 일으킨 기타 각양 각색의 전쟁은 무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은 세계 각지에서 특히는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계속 부단히 각종 류형의 국부 전쟁과 무장 충돌을 야기시켰다.

제반 사실은 제국주의 특히는 미제국주의가 자기의 군대를 파견하거나 저들의 주구를 리용하여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며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피압박 민족과 피압박 국가들에 대하여 류혈적인 탄압을 감행하는 조건 하에서 민족 해방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제국주의 하에서의 민족 전쟁의 온갖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리론적으로 옳지 않으며 력사적으로 분명히 오유이며 그리고 실천적으로는 구라파적 배외주의와 같은 것이다.》(전집 제 23 권, 96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반 사실은 부르죠아 반동파들이 무력으로 자국 인민들을 탄압하는 조건 하에서 국내 혁명 전쟁도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레닌은 《국내 전쟁도 역시 전쟁이다. 계급 투쟁을 시인하는 사람은 국내 전쟁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는바, 국내 전쟁은 온갖 계급 사회에 있어서 계급 투쟁의 자연스러운, 일정한 정세 하에서는 불가피적인 계속이며 발전이며 첨예화이다. 모든 대혁명이 이것을 확증하고 있다. 국내 전쟁을 부인하거나 혹은 그것을 망각하는 것은 극단의 기회주의로 떨어지며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전집 제 23 권, 96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력사 상 모든 나라의 대혁명은 거의 다 혁명 전쟁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미국의 독립 전쟁과 남북 전쟁은 하나의 실례로 된다. 불란서의 혁명도 하나의 실례로 된다. 로씨야의 혁명과 중국의 혁명도 물론 하나의 실례로 된다. 월남 혁명, 쿠바 혁명, 알제리아 혁명 등등도 모두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역시 실례로 된다.

1871년 맑스는 제 1 국제 당 창건 7주년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파리 콤뮨의 경험을 총화하면서 계급적 통치와 계급적 억압을 소멸하기 위한 조건을 제기하였다. 그는 《우선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여야만 이러한 변혁을 실현할 수 있으며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은 바로 프로레타리아 군대이다. 로동 계급은 반드시 전쟁 마당에서 자신의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하였다.

1938년 모 택동 동지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근거하여 로씨야 혁명과 중국 혁명의 경험을 서술하면서 《총'대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유명한 명제를 제기하였다. 지금 이 명제도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공격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바로 중국이 《호전적》이라는 론거이라고 말하고 있다.

존경하는 벗들, 당신들의 이러한 중상과 비방에 대하여 모 택동 동지는 벌써 25 년 전에 반박하였던 것이다.

모 택동 동지는 《국가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의 견지에서 보면 군대는 국가 정권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 정권을 탈취하려 하고 또 그것을 보전하려 한다면 강대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전쟁 만능론자〉라고 비웃고 있다. 그렇다. 우리는 혁명 전쟁 만능론자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며 맑스주의적인 것이다.》(모 택동 선집 제 2 권, 868 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모 택동 동지가 지적한 이 말이 과연 틀렸단 말인가? 수백 년간의 세계 각국의 부르죠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전체 력사적 경험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모 택동 동지의 이 명제를 부인할 수 있다.

중국 인민은 이미 총'대로써 사회주의 정권을 만들어 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제외한 그 누구도 이것이 좋은 일이며 이것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며 제 3 차 세계 대전을 방지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자기의 견해를 절대로 은페하지 않는다. 우리는 각국 인민의 혁명 전쟁을 충심으로 지지한다. 바로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혁명 전쟁은 《력사가 아는 모든 전쟁 중에서 유일한 합법적인, 정당하고 정의에 맞는 참으로 위대한 전쟁이다.》(레닌 전집 제 8 권 1 분책, 148~149 페지) 만일 이 점을 가지고 우리를 호전적이라고 공격한다면 그것은 다만 우리가 참으로 피압박 인민과 피압박 민족의 편에 서 있으며 진정한 맑스-레닌주의자라는 것을 증명하여 줄 뿐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은 종래에도 이렇게 볼쉐위크를 《호전적이다.》라고 욕질하였으며 레닌, 쓰딸린과 같은 그러한 혁명의 수령도 《호전적》이라고 욕하였다. 우리가 오늘 제국주의자들과 수정주의자들의 이와 같은 욕지거리에 부딪쳤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추켜들었다는 것을 설명하여 준다.

흐루쑈브와 기타 사람들은 제국주의가 아직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도 온갖 종류의 전쟁을 피할 수 있으며 《무기가 없고, 군대가 없고, 전쟁이 없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전력을 다하여 떠들어 대고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바로 다름 아닌 카우츠키가 제기하였고 오래 전에 파산된 《초제국주의》 리론과 꼭 같은 것이다. 그들의 목적이 바로 제국주의 하에서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인민들로 하여금 믿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혁명을 말살하고 제국주의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민족 해방 전쟁과 혁명적 공민 전쟁을 말살하며 나아가서 제국주의자들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실지로 도우려는 데 있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핵 우상화와 핵 공갈은 현대 수정주의의 리론적 기초이며 정책적 지침이다

핵 무기의 출현과 함께 모든 것이 변하였으며 계급 투쟁의 법칙들도 변하였다고 하는 여기에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리론의 본질이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공개 서한에는 《우리 세기의 중엽에 만들어진 로케트-핵 무기는 전쟁에 관한 종전의 개념들을 변경시켰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여 로케트-핵 무기가 이 개념들을 변경시켰단 말인가?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무기의 출현과 함께 전쟁은 이미 정의적인 것과 부정의적인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원자탄은 계급적 원칙에 따라 가지 않으며》, 《원자탄은 제국주의자들이 있는 곳과 근로자들이 있는 곳을 가리지 않고 페허로 만들어 버리며 따라서 한 명의 독점 자본가가 죽을 때 수백만의 로동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무기의 출현과 함께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은 반드시 혁명을 포기하고 정의의 인민 혁명 전쟁과 민족 해방 전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인류가 멸망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어떠한 작은 《국부 전쟁》도 《세계 대전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불꽃으로 될 수 있으며》, 《오늘날 임의의 전쟁도 그것이 보통의 전쟁 또는 비핵 전쟁으로 시작되였다 할지라도 파멸적인 로케트-핵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기의 노아의 배인 지구를 소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제국주의자들의 핵 공갈과 전쟁 위협 앞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저항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굴복할 수 밖에 없다고 간주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의심할 바 없이 만약 제국주의 미치광이들이 세계적인 핵 전쟁을 도발한다면 필연코 전쟁을 산생시키는 자본주의 체계의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를 위한 전 세계의 투쟁 위업이 세계적인 핵 재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인가?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사실을 보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맑스-레닌주의자들에 대하여 말할 때 그들은 세계 문화 중심들의 페허 우에서 열핵재에 의하여 오염된 황량한 땅 우에서 공산주의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수 많은 인민들의 육체가 이미 우리의 지구 상에서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주의라는 문제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데 대하여서는 론의하지 않겠다.》 총적으로 말해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무기가 출현한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 간의 모순, 자본주의 국가 내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모순, 피압박 민족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 전부 제거되였으며 지금 세계의 모든 계급적 모순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현 세대의 세계적 모순을 오직 하나의 모순으로 보고 있는바 즉 자기들이 허구날조한 이른바 제국주의와 피압박 계급, 피압박 민족의 공동적인 생존과 전면적인 파멸 간의 모순으로 보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맑스-레닌주의의 선언과 성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머리 속에서부터 완전히 까마득하게 내던지고 말았다.

보라, 《쁘라우다》지는 《만약 머리가 날았다면 원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하였는데 그것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가.

이것은 로씨야에서의 혁명 위업과 10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반동들의 총칼에 희생된 모든 혁명가들과 반파쑈 전쟁에서 용감히 쓰러진 모든 전사들 그리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피를 흘린 모든 영웅들과 혁명 위업에 몸을 바친 고금의 모든 렬사들이 마치도 모두 우둔한 사람들이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이 원칙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필요야 없지 않는가?

이것은 참말 문'자 그대로의 가장 배신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파렴치한 것은 반역자들의 참회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핵 우상화와 핵 공갈의 《리론》의 지도 하에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 평화를 수호하는 현대의 모든 력량이 단결하여 가장 광범한 통일 전선을 결성하고 미제와 그의 앞잡이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두 핵 소유 렬강인 미국과 쏘련이 서로 협조하여 세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흐루쑈브는 《우리들은 (미국과 쏘련을 말함—편집자 주) 모두다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들인바 만일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단합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때에 가서 만일 그 어떤 미친 환자가 전쟁을 도발하려 한다면 우리가 다만 손'가락으로 위협만 하여도 그를 충분히 눌러 앉히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부터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원쑤들을 자기의 벗으로 간주하면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누구나 명백히 알 수 있다.

자기의 과오를 엄폐하기 위하여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허위와 중상을 꺼리지 않으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한 로선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중국 공산당이 각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전쟁과 국내 혁명 전쟁을 지지하는 것은 마치도 세계적 핵 전쟁을 도발하려는 것이라는 듯이 날조하고 있다.

이것은 괴상 망측한 거짓말이다.

중국 공산당은 항상 사회주의 국가들은 응당 민족 해방 전쟁과 국내 혁명 전쟁을 포함한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왔다.

이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와 함께 우리는 모든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이 오직 자기의 단호한 혁명 투쟁에 의해서만 해방을 달성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대신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각국 인민들의 민족 해방 전쟁과 국내 혁명 전쟁을 지지함에 있어서 핵 무기를 리용해서는 안 되며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변함 없이 인정하고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 우세를 달성하며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변함없이 인정하고 있다. 오직 이렇게 함으로써만 제국주의로 하여금 감히 핵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며 핵 무기의 완전한 금지를 실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핵 무기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제국주의의 핵 위협을 반대하는 방위 수단으로 될 뿐이라고 변함 없이 간주하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절대로 핵 무기를 선참 써서는 안 되며 그것으로 장난질을 해서는 안 되며 핵 공갈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핵 무기 도박을 놀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대하여 지지하지 않는 그릇된 실천을 반대하며 또한 핵 무기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태도를 반대한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자기 오유에 대하여 자기 비판적으로 검토할 대신에 오히려 우리가 쏘련과 미국의 《이마를

쬥게 하고》 이 두 나라를 핵 전쟁에 끌어 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저 한다. 아니다. 벗들, 쎈세이숀을 타산한 당신들의 거짓과 중상을 집어치우라! 중국 공산당은 자기 성명들에서 쏘련과 미국 두 렬강의 《이마를 쬥게 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실천 행동에서 이 두 나라의 직접적인 무장 충돌을 방지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조선 동지들과 함께 조선에서의 미국 침략을 반대하는 전쟁에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우리와 조선 동지들이 대만 해협에서의 미국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상 사회주의 진영의 수호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서 언제나 필요한 희생의 중하를 자신이 담당하면서도 쏘련은 제 2 선에 남아 있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오늘 감히 그와 같은 거짓을 날조하고 있다.

과연 여기에 그 어떤 프로레타리아 도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사실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바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항상 말로써는 핵 무기로써 이러저러한 나라들의 반제 투쟁을 원조할 용의가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은 핵 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혁명 과정에서 핵 무기를 사용하여 혁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으며 또 그럴 필요성도 없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도 민족 해방 전쟁 및 공민 전쟁에서는 많은 경우에 교전 쌍방을 구분하는 명확한 전선이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핵 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핵 무기로써 각국 인민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해야 하는가? 라고 쏘련 공산당 지도부에 묻고저 한다.

우리는 또한 쏘련 공산당 지도부에 다음과 같이 묻고저 한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자기의 핵 무기로써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하려 하는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족 해방 전쟁이나 국내 혁명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핵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혁명적 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자들과 함께 핵 타격을 받게 하려는가? 혹은 제국주의자들이 상용 무기로써 침략 전쟁을 진행하는 조건 하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핵 무기를 사용하려는 것인가? 이 경우나 저 경우나를 막론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핵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일이다.

실지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핵 무기를 휘두르는 것은 결코 진심으로 각국 인민들의 반제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전혀 자기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서 값싼 인기를 획득하기 위해 내용 없는 성명만을 발표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 례하면 카리브 위기시에 그들은 요행을 바라면서 투기를 하며 남에게 말하지 못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책임하게도 핵 무기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핵 공갈이 적에 의하여 간파되고 후자가 반공갈로 대응하자마자 그들은 곧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기 시작하면서 모험주의로부터 투항주의로 굴러 떨어지며 핵 도박에서 빈손을 털게 된다.

우리는 위대한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가 전 세계 평화 수호의 위대한 력량이였으며 또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그러나 핵 우상화와 핵 공갈에 기초한 흐루쑈브의 군사 사상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흐루쑈브의 안중에는 오직 핵 무기만이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현 군사 기술 발전 하에서 공군과 해군은 자기의 종전의 의의를 상실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무기는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교체되는 것이다.》

그러니 지상 전투 과업을 수행하는 군대와 병사들은 더욱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시대에 와서 나라의 방위력은 우리에게 무기를 잡은 병사가 얼마나 있으며 얼마 만한 사람들이 병사 외투를 입고 있는가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방위력은 그 나라가 어떠한 화력과 어떠한 운반 수단을 갖고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좌우되고 있다.》

민병과 인민 대중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것들은 더구나 론의의 대상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흐루쑈브에게는 현대적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민병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의 고기'덩이라는 유명한 금언이 있다.

흐루쑈브의 이 모든 군사 리론은 전쟁과 군대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로부터의 완전한 리탈로 된다. 만일 그러한 그릇된 로선을 따라 간다면 자기의 군대를 와해시킬 뿐이며 자기 자신을 도덕적으로 무장 해제시킬 뿐이다.

어떤 사회주의 국가도 만일 흐루쑈브의 그릇된 군사 전략 사상을 적용한다면 자신을 아주 위험한 처지에 몰아 넣을 뿐이라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

물론 흐루쑈브는 자기 자신에게 《위대한 평화 투사》와 같은 각종 칭호를 수여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며 영웅 훈장들을 수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제아무리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의 위험하고 경솔하고 무모한 핵 무기 장난을 엄폐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의 핵 공갈 앞에서 굴종하는 자기의 현상을 엄폐하지 못 할 것이다.

투쟁이냐, 투항이냐

세계 평화는 인민들의 투쟁으로써만 쟁취할 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구걸로써는 얻을 수 없다. 인민 대중에 의거하고 창에는 창으로 대함으로써만 제국주의 침략 및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평화를 효과적으로 고수할 수 있다. 이것은 정확한 방침 인것이다.

창에는 창으로 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는 것— 이것은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장기간의 투쟁 과정에서 중국 인민이 얻은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다.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장 개석은 인민에게서 조그마한 권리라도 꼭 빼앗아 내며 조그마한 리익이라도 꼭 얻어 낸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방침은 날카롭게 맞서며 한 치의 땅이라도 꼭 다투는 것이다. 우리는 장 개석의 방법 대로 한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장 개석은 언제나 인민에게 전쟁을 억지로 덮씌우려 한다. 그는 왼 손에도 칼을 들고 있고 오른 손에도 칼을 들고 있다. 우리도 그의 방법 대로 칼을 들었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1, 736 페지)

모 택동 동지는 또한 1945년에 당시의 국내 정치 정세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날카롭게 맞서는〉 데는 형세를 보아야 한다. 때로는 담판하러 가지 않는 것이 날카롭게 맞서는 것이고 때로는 담판하러 가는 것 역시 날카롭게 맞서는 것이다…남이 쳐 들어 오면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 싸우는 것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한 것이다. 해방구를 감히 진공하는 반동파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1,786~1,787 페지)

모 택동 동지는 중국 대혁명이 실패하게 된 력사적 교훈에 대하여 총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진 독수는 반혁명이 인민을 진공하는 데 대하여 날카롭게 맞서며 한 치의 땅이라도 꼭 다투는 방침을 취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1927년의 몇 달 동안에 인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를 몽땅 상실하였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1,739 페지)

창에는 창으로라는 투쟁 방침을 체득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창에는 창으로라는 투쟁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우리는 투항주의도 반대하며 모험주의도 반대한다. 이와 같은 정확한 방침은 중국 혁명의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또한 혁명이 승리한 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달성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성과를 보장하여 주었다.

모든 혁명적인 인민들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제기한 이 정확한 투쟁 방침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고 있으며 그것을 환영하고 있다. 모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모두 이 방침을 두려워하며 증오하고 있다.

창에는 창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중국 공산당이 제기한 방침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악의에 찬 공격을 받았다. 이것은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것을 실증하여 줄 뿐이다.

이 로선을 공격하며 중상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그릇된 로선 즉 제국주의 앞에 순종하며 투항하는 로선을 엄폐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창에는 창으로 대하면서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전개한다면 이것은 긴장 상태의 조성을 가져 오지 않겠는가? 그러면 야단이 아닌가?

이와 같은 론리에 의한다면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침략하며 위협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침략 당하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피압박자들이 반항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벗겨 주려는 로골적인 행동이다. 이것은 철두철미 약육 강식의 철학이다.

국제 긴장 상태는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에 의하여 조성된다. 각국 인민들이 제국주의측으로부터의 침략과 위협 앞에서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제반 사실은 투쟁의 방법으로써만 제국주의자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으며 국제 정세의 진정한 완화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계속 양보하는 것만으로써는 진정한 완화를 가져 올 수 없으며 오히려 제국주의 침략을 조장하여 줄 뿐이다.

우리는 항상 제국주의자들이 국제 긴장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반대하여 왔으며 국제 긴장 상태의 완화를 쟁취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이 가는 곳마다에서 기어코 침략을 감행하며 긴장 상태를 조성시키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기대한 것과 정반대를 가져 올 뿐일 것이다.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 제국주의자들은 긴장 상태가 항상 저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들은 미국에 의하여 조성된 긴장 상태가 미국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들을 가져 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전 세계 인민들을 궐기시켜 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 독점체들이 만약 자기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면 전 세계 인민들에 의하여 교수대에 오르게 될 날이 반드시 도래하고야 말 것이다.》(1958년 9월 9일 부 《인민 일보》)

1957년 선언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게 지적하였다. 《이 반인민적 제국주의 침략 세력은 자기 정책으로 자기 자신의 멸망의 길을 닦으며 자기를 매장할 매장인을 자신이 만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력사적 변증법이다. 제국주의를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진리를 리해하기 아주 어려울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당신들이 창에는 창으로라는 투쟁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곧 회담을 거부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 이 역시 궤변이다.

우리는 일관하여 그 어떠한 조건 하에서나를 막론하고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맑스-레닌주의자가 아니라고 간주하고 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내 혁명 전쟁 시기에 수차에 걸쳐 국민당과 더불어 회담을 진행하였다. 중국이 해방되기 전야까지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의연 회담을 거부하지 않았다.

1949년 3월 모 택동 동지는 전면적인 평화 회담이나 혹은 국부적인 평화 회담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에 다 림할 태세가 되여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는 시끄러움을 꺼리고 안온함을 탐하여 이런 담판을 접수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또한 어리벙벙하게 이런 담판을 접수하여서도 안 된다. 우리의 원칙성은 반드시 견정한 것이여야 하며 우리는 또한 원칙성을 실현하기 위한 일체 허용되고 필수적인 령활성도 있어야 한다.》(《모 택동 선집》 제 4 권, 2,201 폐지)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와 반동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회담에 대하여 정확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조선에서의 정전 담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모 택동 동지는 1951년 10월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조선 문제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벌써 오래전부터 성명하여 왔으며 현재도 그러하다.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기초 우에서 해결하려는 용의를 가지며 과거처럼 이 담판을 파탄시키거나 방해하기 위하여 온갖 파렴치한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그만 둔다면 조선에서의 정전 담판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1951년 10월 24일 부 《인민 일보》)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미제로 하여금 담판에서 조선에서의 정전 협정을 접수하게 하였다.

우리는 1954년의 제네바 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인도지나에서의 평화를 회복하는 사업에 기여하였다. 우리는 우리의 령토인 대만을 강점하고 있는 미국과도 역시 회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중 미 간의 대사급 회담은 이미 8 년 이상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라오스 문제에 관한 1961년 제네바 회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라오스의 독립과 중립을 존중할 데 관한 제네바 협정의 체결을 촉진시켰다.

그러면 중국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제국주의 국가들과 회담하는 것을 허용하고 쏘련 공산당 지도자들이 제국주의 국가 지도자들과 회담하는 것만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사실 상 우리는 쏘련 정부와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 진행되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위업에 해롭지 않고 리로운 회담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례컨대 1960년 5월 14일 모 택동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성과를 달성하건 또는 그 성과가 어떠하건 즉 성과가 크건 작건 간에는 관계없이 정부 수뇌자들의 회의 소집을 지지한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주로 모든 나라 인민들의 결정적인 투쟁에 의거하여야 한다.》 (1960년 5월 15일 부 《인민 일보》)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회담을 지지한다. 그러나 절대로 흐루쑈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를 회담에 걸며 회담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을 전파함으로써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지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회담에 대한 흐루쑈브의 이러한 그릇된 태도는 회담 자체에도 불리하다. 흐루쑈브가 제국주의자들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양보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가 구걸하면 할수록 제국주의자들은 더 비싼 값을 부르는 것이다. 흐루쑈브는 력사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가장 큰 회담의 숭배자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결과 그는 항상 짝사랑만 하게 되였으며 여러 번 웃음'거리

로 되였다. 많은 력사적 사실들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항상 투항주의자들에게 그 어떠한 체면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평화를 수호하는 길과 전쟁을 초래하는 길

총괄적으로 말해서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우리와 쏘련 공산당 지도부 간의 의견 상이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혁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제국주의의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데로 전 세계 인민들을 동원하느냐 동원하지 않느냐, 맑스-레닌주의를 고수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각이한 로선 간의 의견 상이이다.

중국 공산당은 기타 모든 진정한 혁명적인 당들과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다. 우리는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를 부단히 폭로하고 미국을 괴수로 하는 제국주의와의 투쟁에로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야 하며, 사회주의 진영의 력량의 발전에 의거하며, 각국의 프로레타리아트와 근로 인민들의 혁명 투쟁에 의거하며, 피압박 민족들의 해방 투쟁에 의거하며, 모든 평화 애호 인민들과 국가들의 투쟁에 의거하며, 미제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광범한 통일 전선에 의거하여야 한다고 인정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러한 로선은 1957년 선언과 1960년 성명이 규정한 각국 공산당들의 공동 로선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인민 대중을 부단히 각성시킴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한 투쟁을 정확한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사회주의 진영을 핵심으로 하는 세계 평화 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며 제국주의 전쟁 세력에 부단히 타격을 가하고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각국 인민들의 혁명을 부단히 강화 발전시킴으로써 제국주의의 수족을 얽어 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미제와 기타 제국주의자들 간의 모순을 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동원하여 미 제국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킬 수 있다.

이 로선에 의거한다면 미제의 핵 공갈을 분쇄하고 새로운 세계 대전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계획을 파탄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각국 인민들이 혁명의 승리를 쟁취하는 길인 동시에 세계 평화를 쟁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정확하고도 효과적인 길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가 집행하고 있는 로선은 우리의 로선과 완전히 상반되며 모든 맑스-레닌주의자들 및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 로선과도 상반된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투쟁의 예봉을 세계 평화의 원쑤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에 돌려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핵심 력량을 약화시키며 파괴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공갈로써 사회주의 각국 인민들을 놀래우고 그들이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의 혁명 투쟁을 지지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미제가 사회주의 진영을 고립시키고 각국 인민의 혁명을 탄압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핵 공갈로써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과 피압박 민족들을 놀래우고 있으며 혁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미제와 한 짝이 되여 혁명의 《불꽃》을 소멸함으로써 미 제국주의로 하여금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에서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마음 대로 추진시킬 수 있게 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들을 놀래우면서 그들이 미국의 통제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못 하게 함으로써 미제가 이 나라들을 예속시키고 자기의 진지를 공고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제국주의의 침략 정책과 전쟁 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미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을 반대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통일 전선을 근본적으로 취소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세계 평화의 주되는 원쑤를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 력량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는 것이다.

쏘련 공산당 지도부의 이러한 수법은 사실 상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 과업을 취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미 제국주의의 《세계 전략》에 적응하는 로선이다.

이것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을 조장시켜 전쟁을 초래하는 길이다.

현 세계는 이미 제 2 차 세계 대전 전야의 세계가 아니다. 지금은 강대한 사회주의 진영이 있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 해방 운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세계 인민의 각오도 대대적으로 제고되였다.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의 력량도 대대적으로 강화되였다. 쏘련 인민들, 사회주의 각국 인민들, 세계 각국 인민들은 절대로 제국주의의 전쟁 세력과 그들의 앞잡이들이 자기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각국 반동파들의 침략 및 전쟁 책동은 세계 각국 인민들을 교양하며 점차 각성시키고 있다. 사회적 실천은 진리를 검열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된다. 우리는 전쟁과 평화 문제에서 인식 상 그릇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국주의와 반동파들의 반대 측면에서 교양을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개변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커다란 희망을 걸고 있다. 우리는 오직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 전 세계 인민들이 제국주의의 기만을 폭로하며 수정주의의 황당한 리론을 간파하며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책임을 담당하여 나선다면 제국주의자들이 계획하고 있는 새 세계 대전의 도발을 분쇄하고 세계 평화를 수호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주　해

① 칼• 카우츠키; 《민족 문제》
② 칼• 카우츠키; 《방어 문제와 사회 민주주의》
③ 동상
④ 1912년 헴니쯔에서 진행된 독일 사회 민주당 대회에서 한 가제의 연설 중에서 《사회 민주당 대회들(1910~1913년)의 참고서》 제 2 권 중에서
⑤ 칼• 카우츠키; 《전쟁과 민주주의》 서문
⑥ 1919년 사회주의 인터나쇼날 베르냐크 회의에서 채택된 민족 련맹 문제에 대한 결의
⑦ 칼• 카우츠키; 《전쟁 시기의 사회 민주당》
⑧ 칼• 카우츠키; 《전쟁과 민주주의》 서문
⑨ 칼• 카우츠키; 《사회 민주주의 교서》
⑩ 1912년 헴니쯔에서 진행된 독일 사회 민주당 대회에서 한 군비 축소 문제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연설 중에서 《사회 민주당 대회들(1910~1913년)의 참고서》 제 2 권 참조
⑪ 칼• 카우츠키; 《다시 한 번 군비 철폐에 대하여》
⑫ 칼• 카우츠키; 《방어 문제와 사회 민주주의》
⑬ 동상
⑭ 칼• 카우츠키; 《사회주의자들과 전쟁》

근로자 제 23 호 (루계 237 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인쇄소 • 평양 종합 인쇄 공장
발 행 • 1963년 12월 5일　　인 쇄 • 1963년 12월 3일

ㄱ—330790　　값 40 전

《맑스 엥겔스 전집》 제 5 권

판형 국판, 예정 페지 700페지

《맑스 엥겔스 전집》 제 5 권에는 맑스와 엥겔스가 1848년 3 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한 저작들과 론설들이 수록되여 있다.

이 책의 기본 내용을 이루는 것은 맑스와 엥겔스가 독일에 돌아 온 후 집필하여 1848년 6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의 기간에 《신라인 신문》에 발표한 론설들이다.

이 책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1848년 혁명 시기에 독일 혁명과 구라파 혁명에서의 정치적 사변들을 력사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분석하였으며 혁명 투쟁의 매 단계에 대한 프로레타리아트의 전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신라인 신문》에 발표된 맑스와 엥겔스의 론설들과 저작들은 1848년 혁명에서의 그들의 전술과 혁명 시기에 발휘한 인민 대중의 풍부한 투쟁 경험을 총괄한 극히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 책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한다.